

정부, 현행 '사회적거리두기'와 '5인 이상 모임금지' 31일까지 2주 연장

- 2월1일부터 설까지 특별방역, "사실상 한 달 연장"

- 유흥시설 5종-홀덤펍은 영업금지... "반발 예상"

- 헬스장,노래연습장 인원제한 하에 영업 허용-카페내 오후 9시까지 취식 가능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6일 오전 정세균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자가 최근 하루에 500~600명대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을 주시하고 재확산을 막기 위해 현행 17일 종료 예정이던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와 전국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이달 말까지 2주 더 연장하기로 발표했다. 또한 다음 달 1일~14일까지 설연휴 특별방역대책도 함께 추진키로 하면서 사실상 한 달 연장하는 수순을 밟게 됨에 따라 다음 달 중순까지는 집합금지에 해당되는 업종의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예

사된다. 또 거리두기 조치에 따라 수도권에서는 결혼식, 장례식, 기념식 등도 지금처럼 50인 미만, 비수도권에서는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계속 제한된다. 코로나19 1년만에 수도권 중심상가 거리의 로드샵은 폐업으로 인해 상가가 텅텅비는 공동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사진=김장운기자) 아울러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술을 마시면서 카드 게임 등을 즐길 수 있는 형태의 주점)도 이달까지 영업을 금지된다. 다만, 정부는 다중이용시설 운영 제한에 대해서는 형평성 문제가 불거짐에 따라 헬스장과 노래연습장에 대해서는 이용시간과 인원을 제한하

는 조건으로 영업을 허용하고 카페에서도 오후 9시까지 매장내에서 음식을 먹을 수 있게 하는 등 일부 시설에 대한 방역 조치는 완화했다.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진행되는 1년간 식당 등 소상공인은 절반 이하 매출감소로 고통을 받고 있다. 사진은 수도권 한 식당에 점심시간임에도 빈자리가 많다. (사진=김장운기자) 이에 따라 집단민원이 제기됐던 카페내 식당과 마찬가지로 오후 9시까지 매장 내 취식을 허용하기로 했다. 스키장 내 식당·카페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문을 닫았던 수도권 실내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은 인원을 8㎡(약 2.4평)당 1명으로 제한하는 조건하에 운영을 허용키

로 했다. 학원도 기존 '동시간대 교습 인원 9명 제한'을 '8㎡당 1명'으로 변경했다. 특히 정부는 이와 함께 설 연휴(2.11~14)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만큼 연휴 기간에 고향이나 친지 방문, 여행, 각종 모임 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특별방역대책'도 이날 함께 발표했지만 실효성은 의문이다.

정부가 대규모 이동에 따른 코로나19 재확산 위험을 줄이기 위해 철도 승차권을 잠가 좌석만 판매하고, 연안 여객선의 승선인원도 정원의 50% 수준으로 관리할 예정이지만 정원을 30% 이내로 제한해야 '효과적'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만식/기자

[칼럼] 구치소 담장 그 너머에 무슨 일이

전 국민이 약 5천 만 명이고 남녀 비율이 유사한데 그 중에서 구치소나 교도소를 다녀온 인원이 얼마나 될까.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 게 당연하고 죄인을 구금하기 위해 만든 시설이다 보니 높고 먹으며 유유자적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라 나를 교화를 위한 환경이 마련된 곳이다. 통상 구치소나 교도소에 입소하는 수용자가 형이 확정되어 수형자가 되면 수형자의 개별특성에 맞는 처우를 받게 되며 수형생활을 통해 사회복귀를 준비하면서 가석방 또는 형기를 마친 후 출소하게 된다. 형이 확정되기 전에도 출소하는 경우가 있는데 판사의 무죄, 무혐의, 집행유예 등을 통해 석방되기도 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2017년 4월 구속된 이래 3년 9개월 만에 형이 확정되어 기존의 수형기간을 포함한 잔여기간을 채우든가 사면 대상이라도 되는 것이다. 이를 두고 이낙연 대표가 말꺼냈다. 구설수만 오르고 유시민 전 의원은 문대통령에게 사면을 촉구하는 등 일파만파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 밖에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의 판결도 화제를 모았다. 1심 재판부는 방대본에 교인 명단과 시설 현황을 제대로 내지 않은 것은 정보제공 요청 거부일 뿐 방역을 방해한 건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교회 돈 50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의 선고를 사실상 보석상태에서 자유의 몸이 됐다. 높은 위치에 올라갈수록 매사에 조심해야 안가는 곳, 자칫 정적의 모략과 힘의 논리로 인해 언제 들어갈지 모르는 곳, 그래서 권불심년이라는 말이 있지만 기를 쓰고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한다. 4미터담장 너머 그곳은 어떤 곳일까. 홀대 홀대조차 구수를 두려워할까. 현재 전국에는 서울경기 강원에만 17개, 대구 경북 18개, 대전과 충청지역에 10개, 광주와 전라지역에 9개 등 총 54곳의 교도소 및 구치소가 운영되고 있다. 세간에는 이를 두고 교정의 여지가 있다하여 학교 내지는 큰집이라고도 불리며 제법 힘 있고 돈 있는 재소자는 범털, 반대는 개털 등으로 명명되어 그 세계 속에서도 나름 서열과 위계질서를 갖추고 있다. 좁은 공간에 결코 반감지 않은 인연으로 먹고 자야 하는 재소자들의 갈등과 번뇌는 그리 긍정적일 수 없는 게 현실이다. 막상 재소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죄가 있어 왔다는 사람은 드물다. 대다수가 억울하거나 나를 핑계나 이유가 있다 보니 반성이나 회개보다는 돈 없어 들어왔다거나 재수 없어서 걸렸다는 논리를 편다. 아직도 유전무죄라느니 뻔 있는 놈들은 죄다 빠져나갔다느니 말도 많고 탈도 많다. 어쨌거나 재소자들이 존재하기에 먹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부류, 아니 분야의 종사자들일까. 원천적으로 죄를 안 지어야 하겠지만 죄라는 게 거미줄 같은 범망

속에 지키지 못해 불법을 저지르는 것이고 살다보면 입안에 혀도 물리는 게 세상이다 보니 일명 죄인이 되는 것이다. 어디 알고지은 죄 뿐일까. 길가의 돌맹이를 차도 사람이 맞으면 폭행이 되는 것이고 운전하다 실수로 남의 차를 충돌해도 죄가 되는 것이다. 어쨌거나 범죄를 찾는 경찰, 기소하는 검찰, 판결하는 판사, 수임료에 따라 천차만별이 변호사, 그나마 돈이 없어서 고소장이나 준비서면이라도 써주는 법무사, 사건해결해 주겠다고 설쳐대는 법조브로커와 교도소 교정직원까지 다 죄인들이 있기에 먹고사는 사람들이다. 사람은 세상에 원칙은 있지만 완벽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의사도 의료사고를 일으킬 수 있고 판사도 오판할 수 있는 것이며 수사과정에 죄 없는 사람 죽여서 죄인 만들어 수십 년 옥살이하게 한 경우도 한 두 건이 아니다. 오죽하면 부러진 화살이라는 영화가 국민들의 공감대를 샀을까. 문제는 수사나 재판과정에 알고도의 도적이거나 계획적으로 주어진 권리를 남용했다는 이는 절대 넘어갈 일이 아니다. 위의 두 사건처럼 대외적으로 알려진 대상에 대한 사면이나 무죄판결과는 달리 힘없는 국민이라 하여 증거 없이 구속부터 시켜놓고 온갖 명분 만드는 경우라면 이는 심각한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얼마 전 화제가 되었던 신발부착 사건의 주인공인 정창욱 씨가 그러하다. 아직 구속 상태에서 계속된 재판 연기로 6개월을 채워가고 있지만 일명 진상 프레임부터 씌워놓고 출발한 사건으로서 당사자는 일명 곱살이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2.8평 공간에 5명이 수용된 이 곳은 은어로 불리는 교도소 내부를 구경해 보는 각종 어려움은 대외적으로 알릴 수도 없고 알려야 증거가 어렵다 할 변화도 얻을 수 없어 두 배로 힘든 상황을 지칭하는 말이다. 법적으로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수용자는 독거수용 한다고 돼 있다. 예외도 있지만 교정당국은 교정시설 부족 등을 이유로 이 예외사항을 일반적 기준으로 삼고 대부분 집단수용해왔다. 법무부 교정본부의 2020 교정통계연보를 보면 2012년을 제외하고 10년 동안 평균수용 인원이 정원을 초과했다. 전국 교도소 정원 4만 여명에 실제 수용인원은 5만 명이다. 평균 수용률은 124.3%에 최근 코로나 감염의 핵심으로 알려진 동부구치소의 수용률은 116%다. 범죄국가의 명이나 수준이 저하되는 건 이 같은 일이 내부적으로 근절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무죄추정의 원칙, 증거위주의 판결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하며 피고자 아무리 보잘 것 없는 자라더라도 그 신분이 국가의 주권자라는 점이 전제되어야 한다.

박영준/칼럼

경찰, 마약 범죄 특별단속 '2640명 검거·504명 구속'

경찰이 마약 범죄 근절을 목표로 지난해 실시한 특별단속에서 2600명이 넘는 마약사범을 붙잡았다. 지난해 10월 23일부터 12월 31일까지 70일 동안 불법 마약류 유통 차단을 위해 정부기관 합동 특별단속을 벌인 경찰청은 2640명을 검거하고 504명을 구속하는 성과를 이뤘다. 하지만 2019년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로 마약 범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2019년 같은 기간 1488명을 검거한 것에 비해 폭발적으로 늘어난 수치는 더이상 우리나라가 마약청정국가 아니란 반증의 결과다. 세부적으로 보면 인터넷으로 범행을 하다 붙잡힌 사람이 1074명으로 40.7%에 달했다. 20대와 30대는 각각 34%, 29.2%로 절반이 넘었다. 40대는 18.7%, 50대 이상은 14.7%, 10대는 3.2%다.

이와 함께 마약과 성착취물 등이 비밀스럽게 거래되는 다크웹을 이용했다가 붙잡힌 사람도 327명으로 전년(82명) 대비 약 4배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외국인은 458명으로 전체 검거인원의 17.4%를 차지했다. 국가별로는 태국인이 260명(56.8%)으로 가장 많았으며 범행 장소는 외국인 전용클럽이나 외국인 밀집지역이 주로 이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정동희/기자

코로나19 외식에 절, '나중에' 캠페인에 동참해 주세요

경상북도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식사 중 대화를 통한 감염의 위험성을 차단하고자 외식 예절 '나중에'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나중에' 캠페인은 음식점에서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모임을 자제하고 식당이용 주요 방역수칙을 환기하기 위해 나란히 앉기 중간 자리 비우고 앉기 쉿~ 식사 중 조용히 에티켓의 뜻을 담았다.

캠페인에 많은 도민이 동참하도록 식당이용 주요 방역수칙 웹 포스터를 제작해 도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도 홈페이지, 경북 식문화 유튜브 채널인 드이소 TV에 게시했다.

김진현 복지건강국장은 "모임은 자제하고 음식점 이용 시 마스크 착용과 식사 중 대화 자제 등 일상생활 속 방역수칙 준수여부가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는 최고의 예방백신"이라며 "일상생활 속 방역활동에 도민 모두가 동참해 코로나19를 슬기롭게 이겨나가자"고 당부했다.

김세기/기자

경상북도 새바람 행복 정책. 코로나19 식당(외식) 예절. 모임은 나중에, 식사중 대화도 나중에. 나·란·히 앉기, 중간 자리 비우고 앉기, 쉿! 식사 중 조용히 에티켓.

풍요로움이 주렁~주렁~. 여기는 영양군입니다. 영양군의회. 개인에게 믿음 주는 영양군의회.

김경호 도의원, 가평 소상공인 적기 지원 “절실”

가평군의회 송기욱의원의 기고에 적극 동의, 지원 적기를 놓치지 말아야

코로나19로 심각한 위기를 겪는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가장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14일 김경호 도의원에 의하면 가평군은 2016년 기준 당해연도 지역 총생산액이 1조 5천 6백억원이며 이중 공공행정·국방 분야가 1천 9백억원으로 1위이다.

그러나 소상공인으로 분류되는 숙박 및 음식점업 1천 3백억원, 도매 및 소매업 9백 억원을 합하면 2천 2백 억원으로 소상공인이 가장 높은 총 생산을 보이고 있어 지역경제를 견인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2018년 기준 사업체 조사보고서를 보면 산업별 사업체 구성비는 ‘숙박·음식업’ 3,032개소, ‘도·소매업’ 1,177개소로 전체 사업체수의 6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중소기업 수를 보더라도 중소기업 수는 숙박·음식업 8,177명, 도·소매업 3,014명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이는 곧 숙박·음식업·도소매업이 고용 창출은 물론 지역경제를 견인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어 소상공인이 무너지면 지역경제는 희

생이 불가함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가평군은 각종 규제로 산업 도시로 성장할 수 없어 소상공인의 몰락은 지역의 몰락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따라서 김의원은 “가평군의회 송기욱 의원이 지역 언론에 기고한 대로 제3차 지원금에 대해 적기에 지원하는 주장에 적극 동의하며 동시에 코로나로 인한 지역경제 영향에 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김경호 도의원은 “가평군의 경우 사실상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주체가 공공행정, 농업분야, 소상공인임에도 불구하고 타 직군에 비해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체계가 부족하다”며 “소상공인 지원센터와 같은 행·재정적 제도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지난 11일 전 도민에게 재난지원금 1인당 10만원씩 지급을 경기도에 요청한 상태이고 김의원 역시 2차례에 걸쳐 재난 지원금을 지역 화폐로 조기 지급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최정근기자

사업유치원 안정화 지원금,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긴급돌봄과 교사 인건비 지원에 거름망 되기를.

경기도교육청이 코로나19에 따른 사업유치원 안정화 지원금 117억원을 한시 지급한다고 지난 14일 밝힌 것과 관련해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정윤경 의원은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사업유치원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와 원격수업 연장 등에 따라 퇴원 아동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교사 인건비 지급, 긴급 돌봄 등과 관련한 유치원 운영에 어려움을 호소하며 1월과 2월 사업유치원에 대한 전년도 수준의 한시 지원금 지원 등 정상 운영을 위한 특별 지원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 해 왔고 교육기획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말부터 사업유치원 안정화 지원 대책을 위해 사업유치원과 경기도 교육청 간 적극적인 중재 역할을 해 왔다.사업유치원의 재정운영 악화는 교직원 감축의 원인이 되며 이러한 문제는 곧 원아의 긴급 돌봄 등의 기본적 학습권의 침해 문제로 이어져 경기도 전체의 사회적 문제로 이슈화됐다.이번 지원금은 교육부의 지원이 없는 상황에서 일부를 세운 예산이라 학부모부담 경감에까지는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하지만 어려운

상황에서도 긴급 돌봄이 필요한 학부모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이며 폐원 위기에 처한 유치원의 긴급 돌봄에 필요한 교사와 조리종사원들의 인건비 지급이 코로나19 상황에서 요원하게 되자 교육기획위원회에서 중재 역할을 하게 된 것이다.

정윤경 위원장은 “급변 안정화 지원금을 통해 유치원 교원인건비의 최저임금 확보로 고용 안정과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의 맞바미 가장 자녀 등의 안정적인 긴급 돌봄을 위한 지원책이므로 사업유치원에서도 급변 지원금의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도록 교원의 고용 안정과 안정적 긴급 돌봄 운영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교육기획위원회는 지난 12월 말부터 사업유치원 관련 해결 방안 마련을 위해 함께 소통해 주신 더불어민주당과 교육기획위원회 위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급변 사업유치원 안정화 지원금의 적극적 대책을 마련해 준 경기도교육청에게도 감사사를 표했다.

최만식기자

“지자체 예산, 법률적 근거에 따라 배정·집행해야”

소병훈 의원 ‘지방재정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15일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지방재정법’에 따라 배정 및 집행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우리나라 국가 예산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예산이 배정되고 집행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 예산은 ‘지방재정법’에 별도규정이 없는 상황이다.이에 소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입·세출·계속비·채무부담행위와 명시이월비를 포함한 예산배정계획서에 따라 지방의회의 사무기구·보조기관·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에 예산을 배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교통이나 통신이 불편한 지방에서 지급하는 경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산에 대해서는 회계

연도 개시 전이라도 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계상된 예비비 지출을 결정할 때에는 세출예산으로 배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소병훈 의원은 “지방재정의 기본원칙을 바로세우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법률적 근거에 따라 계획적으로 배정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주민들의 삶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단 한 푼도 낭비되지 않고 주민들의 소득 증대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사용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을 반드시 개정해내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번 개정안은 소병훈 의원을 비롯해 김두관, 김승원, 문정복, 백혜련, 율해인, 이병훈, 이성만, 이용호, 이원택, 조오섭, 홍영표 의원 등 12인이 발의했다.

최광수기자

경기도의회 진용복 부의장 ‘1380만 경기도민과 함께 진정한 자치분권 함께 해오

13일 ‘자치분권 기대해 챌린지 동참’

경기도의회 진용복 부의장이 ‘자치분권 2.0시대’ 개막을 축하하기 위한 ‘자치분권 기대해’ 챌린지에 동참했다.진 부의장은 지난 13일 자신의 SNS에 ‘자치분권 2.0시대 1,380만 경기도민과 함께 진정한 자치분권 함께 해오’라는 문구가 적힌 스탬프를 들고 찍은 사진을 게재했다.

‘자치분권 기대해 챌린지’는 32년 만에 지방의회의 권한과 책임 강화, 주민의 자치 참여 보장 등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을 통해 지방자치의 도약을 축하하고 주민중심 자치분권 실현에 대한 소망을 공유하는 참여형 캠페인이다.백군기 용인시장의 지명을 받은 진 부의장은 다음 참가자로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분과위원장인 배수문, 조광희, 천영미 의원을 지명했다.진용복 부의장은 “지방의 발전이 곧 국가의 발전이며 1,380만 경기도민의 행복한

삶은 대한민국의 행복”이라며 “앞으로 펼쳐질 ‘자치분권 2.0 시대’를 맞아 진정한 자치분권을 위해 함께 해달라”고 말했다.

최정근기자



한병도 의원,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이제 그만 주민자치회 구성 권한 지역이 갖게하는 ‘지방자치법’개정안 발의

지자체가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현재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주민자치회의 확대 추진을 위해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는 ‘지방자치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현재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만이 시범·설치 운영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전국적으로 확대 운영을 위한 법적근거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주민자치회의 안정적인 제도 안착과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주민자치회의 설치 근거를 ‘지방자치법’에 규정하도록 했다.우선, 주민자치회를 읍·면·동별로 설치할 수 있도록 했으며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일부를 주민자치회에 위탁해 수행할 수 있도록 기능적인 부분에 대한 법적근거도 마련했다.아울러 주민자치회 위원으로써 직무를 수행하면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권한을 남용을 하지 않는 등의 원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했다.또한 주민자치회 설치를 함에 있어 지자체가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해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할

수 있도록 했다.특히 현재 시범적으로 운영중인 주민자치회는 계속 운영가능 할 수 있도록 했고 기존 시·군·구에 설치 및 운영중인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회가 최초로 설치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폐지되거나 주민자치회에 승계되어야 함을 경과 규정에 두어 운영하는데 혼란이 없도록 했다.한병도 의원은 “지난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될 때 주민자치회 부분을 빼어냈던 것은 소위차원에서 보다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했기 때문”이라며 “소위 위원 모두 자치회 구성권한을 지역사회에 주고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것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한 의원은 “빠른 시일내에 주민자치회와 관련된 법안들이 논의 될 수 있도록 해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제도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주민자치회가 더 이상 시범사업이 아닌 본사업으로써의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입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최광수기자

황진택 시의원, 경부고속도로에 가로막힌 공도 주민들의 이동불편 해소

공도를 승두·건천·불당리 주민들의 숙원, ‘유천제방 연결도로’ 개통 성과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을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경부고속도로에 가로막혀 3~4km의 먼 길을 우회해야 했던 승두리·건천리·불당리 주민들의 이동불편이 고속도로 밑 연결도로 개통으로 해소됐다.안성시의회 황진택 시의원은 공도읍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유천제방도로 연결사업’을 완료했다고 1월 13일 밝혔다.

그동안 공도읍 승두리·건천리·불당리 주민들은 경부고속도로로 하천 제방도로가 끊겨 걸어서 5분이면 갈 거리를 30분 넘게 돌아와야 하는 이동불편을 겪어왔다.이에 주민들은 오랜 시간 제방도로 연결을 요구해 왔으나, 한국도로공사가 경부고속도로 구조물 안전을 이유로 공사 반대 입장을 표명해 연결사업 추진이 이뤄지지 않았다.

황진택 시의원은 이 같은 주민들의 고충민원을 지난해 7월 12일 접하고 담당 공직자들과 함께 도로 연결방안을 모색, 경부고속도로 구조물 안전에 지장 없이 안성시가 관리주체인 하천부지를 이용한 해결방안을 찾아냈다.

해당 하천부지는 지대가 낮아 기존 경부고속도로 구조물과 무관하게 차량통행이 가능한 높이를 확보할 수 있었다.

이후 황진택 시의원은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확보에 나서 지난해 3회 추경예산에 관련 사업비 1억5천만원을 편성, 같은 해 10월 23일 공사에 착수하는 성과를 이뤄냈다.

해당 연결도로는 지난해 12월 23일 준공검사를 거쳐 현재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다.

승두리 신용정 마을 방진국 이장은 “도로가 연결되기 전에는 바로 눈앞에 보이는 논과 밭을 30분 넘게 한참 돌아야만 갈 수 있었다”며 “황진택 의원을 비롯해 도로연결에 힘써주신 분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황진택 시의원은 “이번 주민고충 해소는 조금만 더 주민 분들의 민원에 귀를 기울이고 함께 고민하면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며 “앞으로도 발생할 속 주민고충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중남기자

FAIR TRADE
공정무역

광명시

공정무역도시 공식 인증

공정무역 도시 선언 후
11개월간 공정한 소비 앞장

공정무역제품 판매점
목표치 3배 넘는 36개 확보

공정무역 활동가 양성 및
공정무역 인식 확산

공정무역가게 협의체 구성,
공정무역오픈박스 프로그램 운영 등

광명시는 노동력 착취, 인권 침해, 경제적 불평등, 환경오염 등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정정바다수도
완도

에서 해양치유로 몸과 마음을 힐링하세요!

◆ 해양치유란?
청정한 해양 환경 속에서 해양기후, 해수, 해양생물 등 해양자원을 이용해 만성질환을 치료, 심신을 치유하는 활동

◆ 완도가 왜 해양치유산업의 최적지인가?
공기 비타민인 산소음이온이 도시보다 50배 많고 바다 정화 역할을 하는 맥반석과 해조류 숲, 깨끗한 바다와 갯벌로 이루어진 청정 지역임

◆ 해양치유산업, 완도에 어떤 도움이 될까?
국민 건강 증진, 일자리와 소득 창출 농·수·축산업 동반 성장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 기여

www.wawa105sujin.com 문화매일 facebook.com/wawa105sujin

우편번호 : 08333 서울 구로구 개봉로 12길 9-19 105동 201호
우편번호:14222 광명시 시청로7 흥신에이스텔 701호

발행·편집인: 최수진 /부회장 박유석 /사장 임석경 / 편집국장:최재은
청소년 보호 책임자 발행인:최수진

대표전화:1899-9659 e-mail:ekwk44@naver.com sujin004344@daum.net

2009년 4월 12일 창간 정 차 부:내선 (112) 문 화 부:내선 (116)
2009년 3월 12일 등록번호:서울 가50146 사 회 부:내선 (113) 부 등 산 부:내선 (117)
본지는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한다 경 제 부:내선 (114) 오 세 비 언 부:내선 (118)
대표전화: 1899-9659 스포츠부:내선 (115) 지 방 부:내선 (119)
편 집 국 : 02)2612-2959 팩 스 : 02)2060-4147 구독신청·배달안내 : 1899-9659 구독료 : 월 15,000 1부 800원

서울시, 저작권침해 불공정계약... 문화예술인 피해사례집 발간

저작권 침해, 대금 미지급, 수익배분 지연 등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화예술분야 분쟁 중심

저작권 침해, 대금 미지급, 불공정 계약 강요 등 프리랜서와 1인 사업자 비중이 높은 문화예술분야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피해 사례와 이에 대한 구제 방안을 담은 사례집이 나온다.서울시는 '서울시 문화예술 공정거래지원센터'에 접수된 약 400건의 피해 상담 중 대표적인 피해 사례 36건과 관련 법령과 판례 등을 담은 '문화예술 불공정 피해 사례분석집'을 18일 발간한다고 밝혔다.이번에 발간되는 사례집은 불공정한 계약조건 강요 저작권 침해 2차적 저작권 권리관계 공동저작물 권리관계 수익배분 거부·지연·제한 계약해지, 손해배상 및 위약금 계약서 작성시 고려사항 등 그동안 피해 상담 신청이 많았고 문화예술인의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분쟁 위주로 구성했다.실제 문화예술업계는 분야별로 표준계약서가 존재하지만, 강제성이 없고 관련 계약 경험에 없는 예술인과 작품 활동 연차나 짧은 예술인들의 유입이 많아 매년 비슷한 피해가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시는 이번 사례집 발간을 통해 문화예술분야 종사자들이 계약

결 전 유형별 연관법령과 판례, 공정 위 심결 등을 숙지해 스스로 권리를 지키고 피해가 발생했다더라도 이를 참고해 빠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이라고 덧붙였다.

'문화예술 공정거래지원센터, 불공정상담부터 법률지원까지 실질적 피해구제 실시' 서울시는 '17년부터 문화예술인, 프리랜서의 권익을 보호하고 불공정 거래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문화예술공정거래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변호사 15명, 노무사 3명, 세무사 2명이 온라인 상시상담 및 전화, 대면 방식으로 불공정 계약관련 고충 및 법률상담을 비롯해 조정, 법률 작성 지원 등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지원하고 있다.현재까지 총 386건의 상담을 진행했으며 피해유형은 계약서 검토 및 자문이 174건로 가장 많았고 대금체불 81건, 저작권침해 51건이 뒤를 이었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담수요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법률지원인을 확충하고 현재 주1회 실시하고 있는 전화·방문상담을 확대 운영해 더 많은 문화예술인들이 원하는 시간에 상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상담대상을 문화예술인은 물론 관련 분야 영세사업주까지 확대 노동법을 몰라 위반하거나 의도치 않게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장치를 마련해 문화예술인의 권익을 선제적·효율적으로 보호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상담을 원하는 문화예술인은 온라인 눈물그만내 상담계시판을 이용하면 된다.방문상담은 매주 화요일 사전 전화예약 후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일시 중단된 상태다.

이번에 발간된 사례집은 관련 예술인협회와 서울소재 대학교 등에 우선 배포하며 온라인 e-북 형태로도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공개 예정이다.박주선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1인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가 대부분인 문화예술인은 노동법보호 사각지대에 있는 대표 취약 직업군"며 "문화예술인의 노동의 가치가 온전히 인정받는 공정한 거래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피해구제는 물론 사용자의 인식개선 등 사전예방을 위한 노력에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최광수기자



망원나들목 공영주차장에 마포 주민들 만족하는 이유

지난해 10월 총 203면 갖춰 정식 개장... 지역 주차난에 '숨통'

마포구가 지난해 건립한 망원나들목 공영주차장이 인근 주민들의 주차난 해결에 큰 역할을 하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지난해 10월 1일 정식 개장한 망원나들목 공영주차장은 A동 62면, B동 141면 등 총 203면의 주차면을 갖추고 있다.A동은 시간제 주차장으로 5분당 200원의 주차요금 부과되며 B동은 모두 거주자 우선주차장으로 사용 중이다.당초 이 지역은 주차장 확보율이 현저하게 낮아 사업현장 반경 300m 이내 지역에 심야시간 불법주차 건수가 평균 약 455대에 이를 만큼 주차문제가 심각한 곳이었다.

구의 공영주차장 건립으로 망원동 지역의 주차난이 숨통을 트였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한편 구는 공영주차장 건립과 동시에 이와 연계해 있는 동교로1길 총 780m 구간을 도로 폭을 확장했다.폭 6m 규모로 협소했던 동교로1길은 현재 12m 너비로 확장돼 보행자 안전을 위한 보도가 설치된 상태다.더욱이, 최근 주차장 내부에 설치된 안심비상벨에 대한 만족도가 높

다.구는 지난해 12월 망원나들목 공영주차장에 총 13개의 안심비상벨을 설치했다.안심비상벨을 누르면 신고자의 위치가 마포경찰서로 즉시 전송되며 112 종합상황실로 신고 전화가 자동으로 연결돼 경찰과 즉시 통화할 수 있다.주민들은 이 같은 변화에 대부분 만족해하고 있다.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 김연주 씨는 "걱정 없이 실내에 안전하게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긴 것만으로도 거주 문제에 큰 부담이 덜어진다"며 "얼마 전 설치된 안심비상벨은 여자로서 정말 반갑고 칭찬하고 싶은 정책이다"고 말했다.관리를 맡은 마포구 시설관리공단 관계자는 "4월부터 이용 가능한 거주자 우선주차구역 대상자 모집공고를 오는 18일 시행하고 이어 2월 8일부터 23일까지 신청자 접수를 받을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유동균 마포구청장은 "지속적으로 교통량과 보행량, 관련 환경조사를 실시해 마포 지역의 도로·주거환경 개선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상순기자



아이 입학걱정 NO... 영등포구, '마음건강 부모학교' 운영

유튜브 채널 '스튜디오 틱툼'에서 시청... 5회 모두 수강 시 특전 제공

영등포구 보건소가 초등학교 예비 학부모를 대상으로 1월 20일부터 2월 3일까지 총 5회에 걸쳐 '마음건강 부모학교'를 운영한다.코로나19 등 예전과는 달린 환경 여건으로 인해 아이의 초등학교 입학에 앞둔 학부모들의 고민은 어느 때보다 크다.

아이가 집단 생활을 시작하며 달라지는 환경에 잘 적응하도록 도와야 함은 물론 감염병 예방과 건강 문제 또한 더욱 신경 써야 하기 때문이다.구는 이러한 학부모들의 고민을 덜어 주고자 이번 마음건강 부모학교에서 '초등1 부모의 정서 특강' 강의를 진행한다.

아동기의 정서 및 행동발달에 필요한 통합적 정보 제공을 통해 학부모들이 아이의 발달과정을 보다 잘 이해함으로써 성공적인 입학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돕는 내용이다.코로나19로 인해 대면 교육이 어려운 요즘, 지역 주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안전

하게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유튜브를 활용한 온라인 특강으로 선보인다.전문 강사진들의 특강과 실시간 질의응답을 통해 아이가 취학하기 전 겪는 학부모들의 다양한 궁금증을 풀어 주고 이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한다.

1월 20일 이병훈 이병훈교육연구소장의 '학교가 뭐니?' 강의를 시작으로 이우남 영문초등학교 교장의 '코로나 시대 행복한 날개를 펴는 코치형 부모되기' 김규연 소화병원의장의 취학 전 건강 체크 관련 강의 오동훈 연세연세진진건강의학과원장의 '뇌발달 촉진 양육법' 이문수 고려대학교 교수의 '아이가 보내는 SOS 신호 귀 기울이기' 등, 전문가들의 알차고 유익한 특강이 차례차례 선보일 예정이다. '초등1 부모의 정서 특강'을 수강하고자 하는 주민은 구 유튜브 채널 '스튜디오 틱툼'에 강의 당일 시간 맞춰 접속하거나, 포스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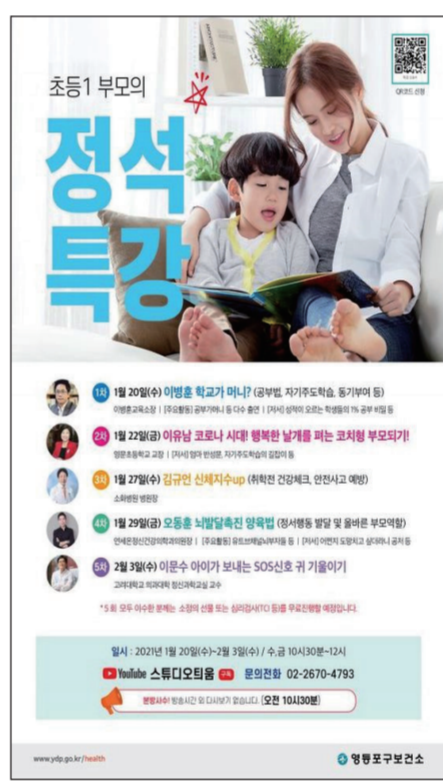
에 인쇄된 QR코드를 이용해 신청하면 된다.

QR코드를 이용해 총 5회 강의를 모두 수강한 구민에게는 소정의 선물 또는 심리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된다.강의는 1월 20일부터 2월 3일까지, 매주 수, 금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12시까지만 공개되며 재방송은 없다.

이외에도 영등포구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아동의 올바른 성장을 돕기 위한 여러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사업을 운영 중에 있다.

차현일 영등포구청장은 "이번 '부모의 정서' 특강이 코로나19 상황에서 아이의 초등학교 입학에 준비하는 학부모님들께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미래를 이끌어갈 새싹인 우리 아이들이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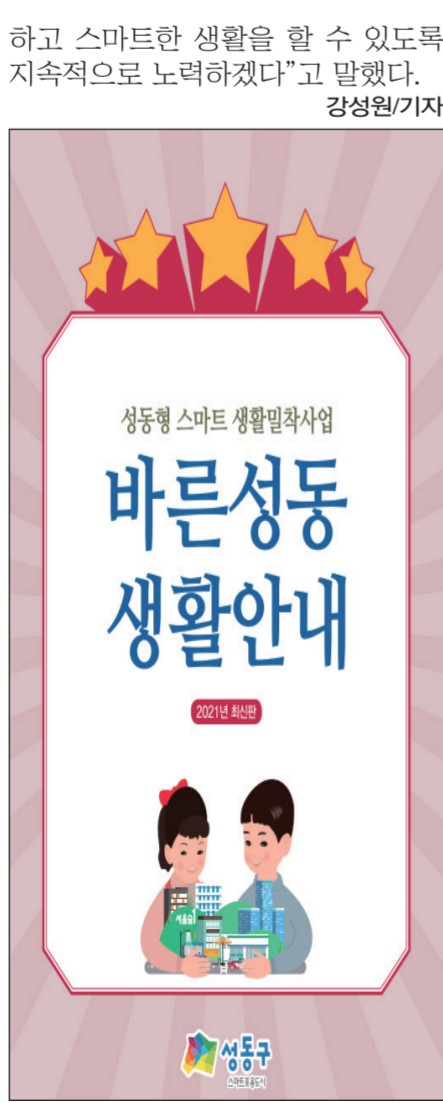
김현일기자



성동구, 주민·생활·현장밀착 '2021년 바른성동생활' 책자 발간

스마트한 교통, 복지, 어르신, 육아 다양한 정보 담아. 17개 사업 소개

서울 성동구가 주민 실생활에 유용한 성동구의 스마트 밀착사업을 내용으로 하는 '2021년 바른성동생활' 책자를 발간했다.이번 책자는 더욱 쉽고 편리해진 스마트한 주민실생활에 유용하도록 생활밀착사업에 대해 알기 쉽고 재미있게 홍보해 주민인 지도를 높이고자 기획한 것으로 '철수'와 '영희'라는 캐릭터를 통해 서로 대화하는 흥미로운 방법으로 내용을 구성했다.책자는 주민, 생활, 현장 밀착을 주제로 교통과 도로 안전을 위한 성동형 스마트워터, 성동형 스마트휠단보, 성동형 스마트 보안 등 어르신을 위한 효사랑 주치의 육아지원을 위한 성동 아이맘건강센터와 육아종합지원센터 어려운 이웃을 위한 돌봄 SOS센터와 착착성동 생활민원기동대 등 17개의 다양한 사업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특히 한파와 폭설로 인해 대중교통이 어려운 경우 이용하기 편리한 '성동형 스마트 워터'의 위치와 이용방법이 상세히 설명되어있고 만75세 이상 모든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효사랑 주치의'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과 함께 신청방법에 대해 상세히 소개하고 있다.정원오 성동구청장은 "단순한 정보제공의 의미를 넘어 스마트하게 변화하는 성동의 행정을 알려 이용도를 높이고 주민들이 더욱 편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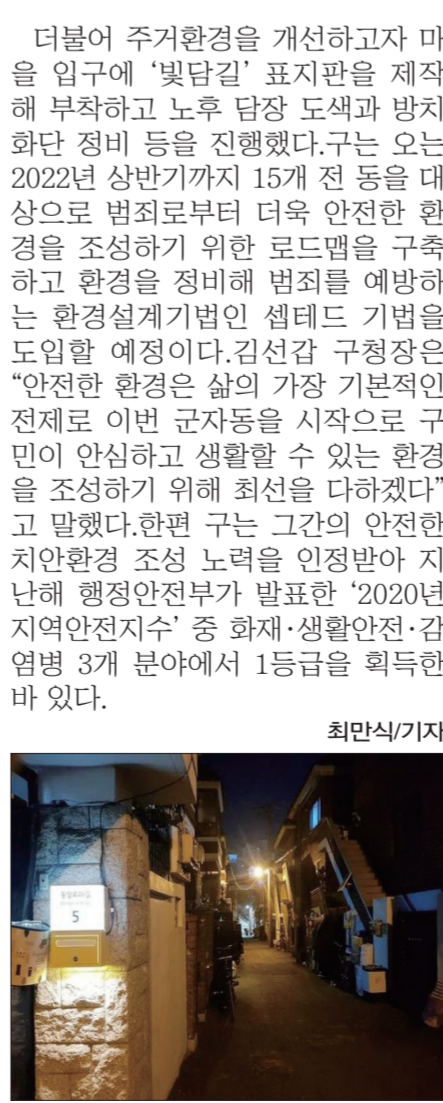


생활안심디자인 적용한 '군자동 빛담길', 어두운 골목 밝힌다

광진구, 군자동에 생활안심디자인 적용한 '빛담길' 조성

길이 좁고 어두웠던 군자동 골목길이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빛담길'로 재탄생했다.광진구가 주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범죄예방 환경 구축의 첫 단추로 군자동 일대에 생활안심디자인 사업을 추진했다.생활안심디자인 사업이란 범죄심리를 위축시키는 디자인을 적용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범죄를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구는 군자동의 지역 문제를 주민과 함께 해결하기 위해 설명회 및 공청회, 설문조사 등을 거쳐 주민 의견을 반영하고 범죄예방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지역 특성과 범죄유형, 불안요소 등을 분석했다.이를 통해 범죄 예방 안전사고 예방 주거환경 디자인 개선 3개 분야로 나누어 지역 특성에 맞는 디자인을 적용했다.구는 먼저 좁고 어두운 골목길을 밝혀 범죄를 예방하고자 태양광 LED 조명우체통 84개와 고보조명 2개를 설치했다.특히 태양광 LED 조명우체통은 기존의 낡은 우체통을 대체하는 동시에 밝은 조명으로 주소를 표시해 위치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이와 함께 구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붐그림 위험이 있는 노후 옹벽을 재정비하고 저단 띠조명을 함께 설치해 보행자의 불안감을 해소했다.



은평구, 2021. 구민 창의 아이디어 제안 공모 실시

공모전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상시접수로 진행...반기별로 제안심사 진행

은평구는 구민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해 구정에 반영함으로써 주민 참여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2021. 구민 창의 아이디어 제안 공모'를 실시한다.공모 주제는 포스트코로나 시대 대응을 위한 공공서비스 및 비대면 정책 제안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4차 산업혁명 혁신기술 활용 아이디어 기업활동 저해 규제 개선 제안 등 주민 생활과 관련한 다양한 분야의 제안을 접수받는다.공모전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상시 접수로 진행되며 반기별로 제안 심사를 진행한다.

구민이면 누구나 국민신문고 및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 가능하고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저작권에

속하는 것이나 단순한 징정·비판·불만 표시, 특정 개인 수의 사업과 홍보에 관한 것은 제안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구는 창의성, 효과성, 지속성 등을 기준으로 사전심사 후 최종 심사를 거쳐 최우수, 우수, 장려등급의 제안을 채택할 예정이며 제안 심사 결과는 2021년 8월 구청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통보 예정이며 공모전에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은평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아이디어 제안 공모를 통해 채택된 우수한 제안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며 공모에 대한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동희기자

공모기간
2021. 1. 1. ~ 12. 31.

공모지역
은평구 발전에 관심있는 구민 누구나

응모방법
- 은평구청 홈페이지(www.ep.go.kr)
- 구민참여·아이디어광장·구민아이디어등록
- 국민신문고 사이트(www.epeople.go.kr)
- 국민제안·일반제안 신청·제안서 작성
- 전자우편 신청(kiwi@ep.go.kr)
- 우편 및 방문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195, 7층 기획예산과
(☎ 02-351-6284)

공모분야
- 포스트코로나 시대 대응을 위한 제안
- 비대면 공공서비스 아이디어
- 비대면 일일생활 정책 등
-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 4차 산업혁명 혁신기술 활용 아이디어
- 생활불편 및 기업활동 저해 규제 개선 등

심사 및 결과발표
최우수상(1명) 우수상(2명) 장려상(3명)
100만원 50만원 30만원

문의
은평구청 기획예산과 지치분권혁신팀
(☎ 02-351-6284)

은평구
www.ep.go.kr

인천시, 올해 어린이집 80%에 관리시스템 도입 추진

지난해 39% 도입, 민간·가정 어린이집 적극 참여로 목표 초과 달성

인천광역시시는 지난해 8월 도입한 어린이집 관리시스템 사용률을 올해 전체 어린이집의 8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천시는 유치원 회계관리시스템 사용 의무화, 공공재정환수법 시행으로 부정이익 환수 등의 사회적 분위기가 고조됨에 따라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어린이집 회계의 투명성과 보육행정의 편의성을 높이고자 지난해 어린이집 관리시스템을 도입했다. 일부 어린이집에서는 관리시스템 도입에 부정적인 시각도 있었으나, 시는 타 지역 갈등 사례 등을 고려해 어린이집 연합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어린이집의 자율적인 참여와 협력을 이끌어 내는 한편 주관사 등과 협업체를 구성해 분기별 상담회를 통해 의견 수렴 및 개선안을 반영하고 있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말 현재 인천지역 전체 어린이집 1,943개소의 39%인 759개소가 관리시스템을 도입해 당초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국공립·공공형·인천형 어린이집을 도입대상으로 하고 민간·가정 어린이집은 자율참여를 유도했는데,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적극적인 참여로 높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시는 올해 상호 협력을 통해 전체 어린이집의 80%까지 관

리시스템 도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시스템의 조기 정착을 위해 어린이집 원장 등 실무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지속적으로 시스템을 개선하고 고도화해 나갈 방침이다. 인천시 어린이집관리시스템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뉴딜의 주요 핵심인 디지털 관리체계 구축, 빅데이터 구축, 빅데이터를 활용한 정책결정, 디지털 기반 교육 인프라 조성 등을 담고 있다. 무료로 보급되는 어린이집 관리시스템을 사용하면 연간 60~150만원 소요되는 회계대행 처리비용을 절감

할 수 있고 카드와 통장 잔액에 대한 적립금 환원 등으로 재정적 지원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 보육통합정보시스템과도 자동 연계돼 스마트한 회계업무 처리가 가능하고 보육전문상담원 헬프데스크 운영, 문자 자동완성 기능, 인천시 보 고문서 표준화, 월 회계내역 검증기능, 교직원 관리를 위한 추가 메뉴 등을 제공받을 수 있다. 관리시스템을 80% 이상 사용하면 회계서류의 디지털화도 가능하고 시스템에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해 어린이집 예산 지원 등 정책결정에 반

김종남기자

동대문구, 설맞이 온라인 직거래장터 운영

자매도시 우수한 특산물 저렴한 가격에 판매...최대 20% 할인 혜택

동대문구가 민족 고유명절인 설을 맞이해 오는 18일부터 설맞이 농수산물 온라인 직거래장터를 운영한다. 이번 온라인 직거래장터는 질 좋은 지역특산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구민에게 판매할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에 처한 농가를 돕기 위해 작년 추석에 이어 설에도 설에도 마련됐다. 동대문구의 자매도시인 나주시·남해군·상주시·순창군·제천시·여주시·연천군·음성군·청송군·청양군·춘천시·보성군·부안군에서 나주 배 남해 멸치 강원 한우 상주 꽃감 청송 사과 등 30여 개 품목을 준비했으며 신선하고 우수한 품질의 농수산물을 시중가보다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 이번 직거래장터는 이달 18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3주간 온라인 판매 및 사전 주문 두 가지 방법으로 운영한다. 동대문구청 누리집 내 자매도시 온라인 쇼핑몰로 연결되는 배너를 통해 온라인으로 구매하거나 구

청과 동 주민센터를 통해 사전 주문하면 최대 2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주문한 특산물은 이달 25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자매도시 농가에서 소비자가 원하는 배송지로 순차 배송된다. 구 관계자는 "코로나19로 각종 축제와 행사가 취소되고 직거래 장터마저 개최하기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빠르게 변화하는 소비자 트렌드에 맞춰 온라인 직거래장터를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설맞이 온라인 장터가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의 소득을 높이고 구민에게는 실속있는 가격으로 우수한 품질의 농수산물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민족 대명절을 맞아 가족 및 지인과의 만남 대신 우수한 특산물 선물을 통해 멀리서라도 마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최만식기자



엔젤공방거리 보행자 중심의 걷고 싶은 문화거리로 거듭난다

강동구, 엔젤공방거리 가로환경개선 기본 계획 수립 용역 추진

강동구가 성안로 엔젤공방거리를 보행자 중심의 걷고 싶은 문화 거리로 조성하기 위한 가로환경 개선 기본 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엔젤공방거리 조성 사업은 강동구가 성안로 주변 변종업소 밀집 지역을 정비해 지금은 부족하지만 아이들과 기술, 열정을 가진 청년들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변종업소를 공방으로 조성해 임대보증금과 인테리어 비용, 입점 후 1년간 월세 5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1년 현재 25호점 개소를 앞두고 있다.

구는 이번 계획을 통해 보차도 환경 개선과 가로수 수종 변경, 특색 있는 가로 디자인 안 등 성안로를 보행자 중심의 걷고 싶은 문화 거리로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도출한다. 사업 구간은 성내동에 위치한 대형 기획사인 JYP 엔터테인먼트에서 강동성심병원교차로로 이어지는 거리로 도로 연장 1.4KM 구간이다. 올해 3월까지 용역을 마치고 사업에 적용하기 위한 실질적 계획을 도출해 본격적인 거리 환경 개선 작업에 나설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우리는 엔젤공방거리 조성 사업으로 청년일자리를 창출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며 "가로 환경 개선으로 더욱 밝아진 성안로를 만들고 걷고 싶은 문화 거리 조성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황규석기자



계양구, 인천시 최초 미세먼지안심 버스승강장 운영

효성프라자 정류소에 미세먼지 안심쉼터 1개소 설치

인천 계양구는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한파와 미세먼지, 자동차 배기가스를 막아 줄 수 있는 미세먼지 안심쉼터를 인천 최초로 운영한다. 미세먼지 안심쉼터는 효성동 사거리에 설치됐다. 가로 3미터, 세로 7미터의 부스로 냉난방 시설은 물론 사물인터넷 기반의 실내외 공기질 측정기, 전장형 환기정정기, 공기질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췄다.

출입구에는 오염된 공기 차단을 위한 에어커튼도 설치되어 있다. 실내외 공기질 측정기와 환기정정기를 비롯한 쉼터 내 기기들과 연동되어 있어 실시간 측정된 공기질 정보에 따라 자동으로 실내 공기질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한다. 수집된 공기질 정보는 모니터링을 통해 실시간 공개된다. 구 관계자는 "기존 개방형 버스정류장은 차량 매연과 한파·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문제점이 있었으나 미세먼지 안심쉼터 설치로 쾌적한 쉼터 제공은 물론 구민의 건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고정화기자



서구, "시천동 일대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적극 환영"

시천동 일대 52만㎡ 포함...경인아라뱃길 주변 개발 활성화 기대

인천 서구는 지난 14일 당정협의에서 결정한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방안'에 서구 시천동 경인아라뱃길 일대 52만㎡의 제한보호구역이 포함된 것에 대해 적극 환영의 뜻을 밝혔다. 특히 서구는 이번 결정이 시천동과 연계된 경인아라뱃길 주변 개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호재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6천여㎡ 등 총 136만8천6백여㎡의 면적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은 건축이나 개발 등의 인·허가와 관련해 군과 협의할 필요가 없어짐으로써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 등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지역발전에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김종남기자



서구, 교통안전 테마 캠페인 '킵보드 안전수칙' 홍보

킵보드 탈 때 헬멧 착용·전방주시·자전거도로 이용은 필수

인천 서구는 '교통안전 테마 캠페인'의 1월 중점 테마를 '킵보드 안전수칙'으로 정하고 운전자도 보행자도 모두 안전한 킵보드 이용법에 대한 홍보에 나섰다.

배포, LED 전광판 표출 등 다양한 홍보 활동에 나선다.

지난해 12월 10일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전동킵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가 자전거와 행병성을 맞추면서 운전면허 소지 없이 만 13세 이상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안전사고가 사회적 문제로 불거지면서 안전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전동킵보드 운행 시 16세 이상 원동기면허소유자 이상 운행을 허용하는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구 관계자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면허 없이 만 13세 이상이면 누구나 전동킵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개정안이 시행되는 4월까지 약 3개월간 이용 연령에 대한 혼란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요즘 킵보드 운전자가 야생 고라니처럼 갑자기 도로에 튀어나오는 이른바 '킵라니'가 문제되고 있는데 연령 제한이 낮아지면 안전사고가 늘어날 수 있다"며 "킵보드 이용자들에게 안전수칙을 홍보함으로써 안전의식을 높여 킵보드 사고를 사전 방지하고자 이번 캠페인을 준비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로 인해 개정안이 시행되는 4월까지 전동킵보드 운행 가능 연령에 대한 혼란을 방지하고 안전한 전동킵보드 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1월 교통안전 테마 캠페인 주제를 킵보드 안전수칙으로 정한 것이다.

서구는 2020년 '교통안전도시' 원년의 해'를 선포하고 교통안전 문화의식개선 및 확산에 힘써왔다. 올해에도 매달 테마를 정해 '교통안전 테마 캠페인'을 추진해서 교통안전에 대한 여러 사항을 폭넓게 알리려 '교통안전도시'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서구는 '킵보드를 탈 때 헬멧 착용·전방주시·자전거도로 이용은 필수'라는 내용으로 반사회 홍보자료

정동희기자



전북도 특사경, 사업장폐기물 불법처리 업체 적발

익산 금마면 소재 폐업공장에 폐합성수지류 폐기물 약 120㎥ 불법 보관

전북도 특별사법경찰팀이 지난 14일 전국적인 조직망을 갖추고 사업장폐기물을 불법 처리하는 현장을 단속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폐기물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전국적 조직망을 갖춘 브로커들의 불법투기가 성행하고 있다. 재활용업체 사업장 등에 폐기물을 반입한 후 무단으로 방치하거나, 임대부지 및 창고 등에 폐기물을 불법으로 투기하고 도피하는 등 폐기물을 법령의 기준에 맞지 않게 처리하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도내에도 경기도 등 타 지역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적법한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하지 않고 익산시 금마면 소재 휴·폐업공장에 불법으로 운반해 처리한다는 민원이 접수됐다.

이에 전북도 특별사법경찰팀은



익산시와 익산경찰서 한국환경공단 등 유관기관과 함께 폐합성수지류 폐기물 약 120㎥를 불법 보관하고 있는 업체를 지난 14일 현장 적발했다. 이번 합동단속으로 적발된 업체는 인·허가와 지도·단속

권한이 익산시에 있어 익산시로부터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형사 고발 및 조치명령 등의 행정 처분을 받게 될 예정이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폐기물관리법 규

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해야 하며 시장·군수가 허가 또는 승인하지 않은 장소에 폐기물을 무단으로 보관해서는 안 된다. 최용대 전북도 민생특별사법경찰팀장은 “최근 조직망을 갖춘 브로커들이 전국을 돌며 폐기물을 불법으로 처리하고 있다”며 “전북도는 불법으로 폐기물이 처리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폐기물 무단투기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불법 폐기물 투기행위를 근절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 팀장은 “식품위생 등 민생 7대 분야에 대한 지도와 단속을 지속 병행하고 있으므로 불법적인 행위가 발견될 시 도 민생특별사법경찰팀으로 제보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김승일기자

창원시, 광암해수욕장 시설 점검

창원시는 광암해수욕장을 찾아 해수욕장 전반적인 시설물을 점검했다고 14일 밝혔다. 창원시 유일 해수욕장인 광암해수욕장은 재개장한 2018년 개장 첫해 2만9000명, 두 번째 해인 2019년 3만9000명이 다녀갔다.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감염병 상황에도 불구하고 전년도에는 4만9000명이 방문한 것으로 나타나 해마다 방문객이 날로 늘어가는 명실상부한 창원시 대표 피서지로 각광받게 됐다. 지난해 다양한 문화공연 행사를 개최 할 수 있는 야외무대, 광암해수욕장 밤바다를 비추는 운치 있는 광암방파제 경관조명, 신속한 재난재해 예방과 더불어 특색 있는 디자인으로 볼거리 제공을 위

한 안내전광판 등을 설치해 해수욕장 찾는 시민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었다. 올해 네번째 개장에 앞서 해수욕장 입욕구역 준설을 통한 수질 개선, 백사장 양질의 모래 양빈, 비치클러너 등을 활용한 지속적인 백사장 유지관리 및 각종 편의시설 정비 등 쾌적하고 더 나은 해수욕 환경을 조성해 7월부터 51일간 개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성호 해양항만수산국장은 “해수욕장 시설개선을 통해 광암해수욕장을 방문하는 이들에게 다시 찾고 싶은 해수욕장으로 거듭나겠으며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겠다”고 밝혔다.

남궁영기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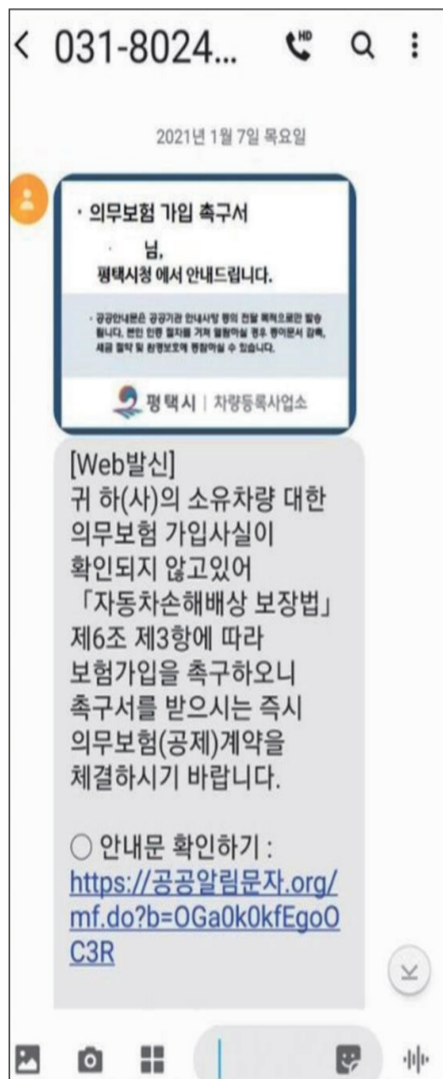


평택시, 차량 책임보험 미가입 등 과태료 고지방법 개선 시행

정기검사 및 의무보험가입 촉구와 과태료부과 고지를 모바일 전자고지로

평택시차량등록사업소는 금년 1월부터 '자동차·건설기계 등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고지'를 모바일 전자 고지 서비스'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는 공공기관이 신용정보회사와 연계해 통신3사에 가입되어 있는 자동차 소유자 휴대폰으로 알림문자를 전송하는 서비스이다. 알리는 내용은 정기검사 기간경과의 통지, 의무보험 가입 촉구서 과태료 사전부과 안내, 본 부과·독촉·체납 고지서 등이다. 알림문자는 본인인증절차를 거치면 안내문 또는 고지서 열람이 가능하다. 지금까지는 검사기간경과 안내 등 고지서를 등기우편 및 일반우편으로 보냈으나 수취인 부재, 미거주 등의 사유로 전달이 안되거나 전달되어도 바쁜 일상생활로 챙기지 못해 본인의 과태료 부과·체납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고 전화변호 확인에도 어려움이 많아 문자전송을 할 수 없었다.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통해 정기검사의 신속한 이행과 의무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과태료를 신속하게 고지해 빠른 시일 내 납부하게 함으로써 체납으로 발생하는 가산금으로 인한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한편 업무의 효율성을 최대한 높일 수 있다고 기대한다.



김남주기자

경기도 특사경, 대형 공사장 불법 위험물 취급행위 집중 수사

위반 불법 위험물 저장·취급 행위 수사 착수

경기도가 화재 취약시기인 1월 18일부터 2월 28일까지 도내 대형 공사장 내 무허가 위험물 취급 불법행위 집중 수사를 한다. 겨울철 공사장은 콘크리트 보양, 작업장 보온, 용접작업 등 위험물 다량 취급과 화기 사용이 빈번해 화재 발생 위험이 높아 이에 대한 예방 차원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수사 대상은 신도시 조성 과 재개발사업이 집중되고 있는 수원, 성남, 고양, 남양주, 평택 지역 등 대형 공사장 70여 곳이다.

주요 수사 내용은 허가 없이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취급하는 행위, 위험물 취급 시 안전관리 미준수, 공사장 내 임시소방시설 미설치 및 부적정 운영, 용접·용단 작업 시 안전수칙 미준수 등이다. 공사

장의 경우 관할 소방서장의 승인을 받으면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9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임시로 저장·취급할 수 있다. 허가받지 않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소 아닌 장소에 저장 또는 취급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인천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겨울철 공사장에서 인화성 위험물질 및 직업용 화기를 부주의하게 사용·관리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인명, 재산 피해가 발생한다”며 “대형화재 예방을 위해 사업장 자체적인 안전관리 노력이 필요하며 범규정 위반 시 엄격히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최정근기자



영광군, 쓰레기 불법투기 특별단속 시행

영광군에서는 그동안 생활쓰레기 불법투기를 예방코자 주민홍보와 계도활동뿐만 아니라, 관내 상습 투기 지역에 고정식 CCTV 22대와 이동식 CCTV 24대를 설치해 불법투기감시 및 단속활동을 지속 추진해 왔다.

“쾌적한 영광 만들기”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미사용 배출과 무단투기가 빈발하고 있으며 재활용품 분리배출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지난해 12월 환경관리센터 주변 지역 주민들의 쓰레기 반입 금지 집회 시위로 영광군 전 지역에 쓰레기 수거 중단 사태가 빚어졌다. 1월 현재 생활쓰레기 수거가 정상화 됐지만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주민들의 인식 개선

또한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앞으로 영광군은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요령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와 ‘불법투기 특별단속 계획’을 수립해 군 2개조 8명과 읍·면 10개조 20명을 불법투기 지도·단속반으로 편성 무단투기 취약지 및 주택가 거점 배출장소에 대해 집중 계도와 단속을 병행해 불법투기를 근절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군 관계자는 “종량제 규격 봉투 미사용 배출에 대해서는 ‘수거거부안내’ 스티커를 부착해 수거 거부를 고지하고 불법투기 적발 시에는 관련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올바른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영만기자



여의도 면적 3.5배 도내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이재명 “시대의 화두는 공정, 특별한 희생엔 특별한 보상 따라야”

여의도 면적에 약 3.5배에 달하는 경기도내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해제 결정됨에 따라,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에 앞장서고 있는 경기도의 노력이 한층 더 구체화될 전망이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당정 협의를 통해 경기도와 강원도, 전라북도 등에 위치한 군사시설보호구역 100,674,284㎡를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이중 경기도에서는 전체 10%인 총 10,073,293㎡ 면적의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가 이뤄졌다.

파주시, 고양시, 양주시, 김포시 등 경기북부 접경지역에 위치한 시군들이 대거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김포는 고촌읍 태리와 향산리 일대 1,558,761㎡, 파주는 파주읍 봉암리·백석리·범원리·선유리 일대와 광탄면 용미리 일대, 야당동 일대 1,796,882㎡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된다. 고양은 덕양구 오



금동·내유동·대자동·고양동 일대와 일산서구 덕이동 일대, 일산동구 성석동·분봉동·식사동·사리동 일대 5,725,710㎡ 면적, 양주는 은현면 도화리 일대와 남면 상수리 일대 992,000㎡가 각각 해제된다. 이들 지역은 건축이나 개발 등의 인·허가와 관련해 사전에 군

과 협의를 할 필요가 없어서 보다 수월한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이 밖에 그간 건축물 신축 등이 금지돼 개발 자체가 불가능했던 파주 군남면 일대 73,685㎡ 규모의 '통제보호구역'이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에 따라 군부대 협의 등을 거쳐 개발행위를 추진할 수 있

게 됐다. 도는 이번 결정으로 그간 국가안보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온 경기북부 접경지역 삶의 질을 증진과 더불어, 균형발전을 저해하던 과도한 규제 상당 부분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이날 당정 협의에 함께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당정의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 지사는 “시대의 중요한 화두가 공정이다. 억울한 사람, 억울한 지역 없어야 한다는 데 많은 사람들이 동의한다”며 “국가안보를 위해 특히 경기도 강원도 북부 지역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어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별한 희생엔 상응하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

고 밝혔다. 보상을 말하기 전에 희생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며 “꼭 필요한 부분만 남기고 규제 완화를 결정한 국방부와 당정에 도민들 대표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최정근기자

시흥시, 정왕동 큰솔공원에 mom편한 놀이터 15호점 오픈

시흥시는 롯데그룹의 지원을 받아 지난 14일 큰솔공원에 'mom편한 놀이터' 15호점을 오픈했다.

이 날 행사에는 임병택 시흥시장을 비롯해 고수찬 롯데지주 부사장, 이재훈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회장, 김연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총장, 박준호 시흥시시장 등이 참석했다. 'mom편한 놀이터'는 아동들이 안전하고 창의적인 놀이공간을 찾기 어려운 현실에 착안해 아동의 놀 권리 증진과 보장을 위해 롯데그룹에서 운영하는 사회공헌사업이다.

시흥시에 자리 잡은 'mom편한 놀이터' 15호점은 인근 외국인 주거비율이 높은 정왕동의 특성을 반영해 '글로벌 월드'라는 컨셉으로 기획됐으며 글로벌월드 조형놀이대 앙코르와트 파고라 세계여행 배흔들놀이 등 여러 나라의 랜드마크를 적용한 시설을 설치해 지역 아동들

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놀이공간을 마련했다. 시설물 이외에도 휴식 공간을 위한 포토존 벤치와 음수전을 설치해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도 조성했다. 시는 글로벌 월드라는 특색에 맞게 국적이 상관없이 지역주민이라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지역민자형, 커뮤니티형 놀이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지역이 함께하는 공간, 'mom편한 놀이터'를 시흥에 오픈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롯데그룹 사회공헌사업의 목적대로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가족 간 또는 아이들끼리 서로 함께할 수 있는 창의적인 놀이공간이 되도록 놀이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등 새로운 놀이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정부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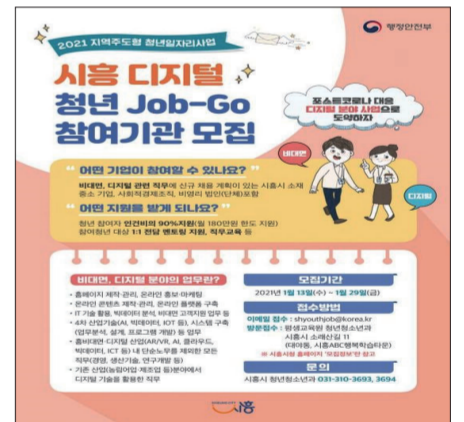


2021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시흥 디지털 청년 Job-Go' 참여기업 모집

시흥시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의 2021년도 신규 사업인 '시흥 디지털 청년 Job-Go'의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코로나19로 청년 취업난이 가중됨에 따라 청년들이 변화하는 고용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일경험을 제공하고 지역 기업에게는 포스트 코로나 이후 업종 및 사업 방식을 비대면·디지털 기술에 따라 변화하도록 유도해 지역유일 추진의 기반을 마련하는데 방향을 두고 있다. 참여기업 신청자격은 디지털 비대면 관련 직무에 청년 신규 채용계획이 있는 시흥시 소재 중소기업, 사회적 경제조직, 비영리법인이다. 심사를 통해 선정된 기업은 채용청년 1인당 월급 200만원 이상 지급 시 최대 180만원을 3월~12월까지 10개월 지원 받는다. 올해는 청년 20명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1월13일~1월29일까지 서류를 구비해 시흥시 청

년청소년과로 방문접수하거나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2018년 하반기부터 시작한 시흥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청년의 지역정착을 지원하는 '시흥 스마트 청년 Job-Go' 청년창업을 지원하는 '시흥 청년CEO 육성프로젝트'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해 지역 청년들의 취·창업을 돕고 있다.

최정부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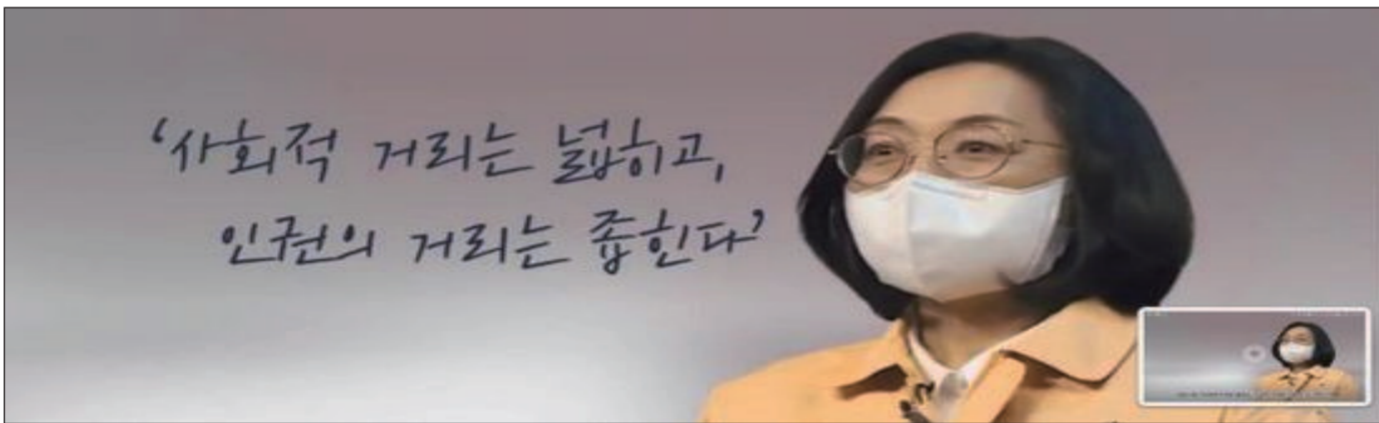


성남시, “경제방역 골든타임 놓치지 않겠다”

성남형 3차 연대안전기금 407억원 지원

성남시는 자체예산 407억원 규모의 '성남형 3차 연대안전기금' 지원을 통해 또 한번의 경제 방역에 발빠르게 나선다고 15일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는 지난해 시행한 총 2850억원 규모의 보편·핀셋 지원을 결합한 '성남형 1·2차 연대안전기금' 지원에 이은 성남시만의 세 번째 경제 방역정책이다.

이번 지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극심한 경제적 피해를 겪고 있는 영세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집중한다. 코로나19 피해업종 소상공인지원 등 10개 취약계층 지원사업, 성남사랑상품권 2000억원 10% 특별할인판매 등 2개 일자리 및 지역경제활성화 사업, 공유재산 임대료 및 상수도요금 감면 등 총 15개 사업이 주요 내용이다. 우선 시는 소상공인과 예술인 등 취약계층 지원에 총 10개 사업 201억원을 투입한다. 집합금지로 피해를 입은 영업장 5501곳에 100만원씩, 1만7669곳 집합제한 피해업소에 50만원씩 총 143억 3600만원을 지원한다. 지난해 2월부터 코로나19로 인해 20회 휴장한 모란민속 5일장에서 시와 임



대차계약을 맺고 영업 중인 545개 점포에도 점포당 100만원씩 생활안전기금을 지원하고 장기휴업으로 운영난에 시달리고 있는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복지시설 총 72곳엔 200만원씩 운영비를,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5672명엔 1인당 10만원씩 3개월 간 성남사랑상품권도 지급한다.

전세버스 업체 10곳에 버스 1대당 100만원씩, 16개 시내·마을버스 운수 종사자 2000명과 22개 법인택시 1500명 운수종사자에게 10만원씩 3개월 간을, 등록 예술인 1608명에게도 역시 30만원씩 지역화폐로 지원한다. 또한 행정복지

센터 등 55개 사업장에 460명 규모의 새희망 일자리사업을 마련하고 성남사랑상품권 2000억원 10% 특별할인판매도 이어가는 등 총 167억원을 투입해 위드코로나시대에 걸맞은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힘을 쏟는다.

더불어 중앙지하상가, 모란민속 5일장 등 전통시장 1221개 점포의 임대료를 60%까지 감면하고 성남 시내버스 등 10개 운송업체를 대상으로 오는 6월까지 사송동 공영차고지 사용료 60% 감면 혜택을 부여한다.

이외에도 심한장애인 1만3850명에게 10만원씩 장애인맞춤형 긴급

지원 저소득 한부모 가정 2600세대에 10만원씩 긴급지원 영업 및 육탕업장 상하수도요금 3개월 간 30% 감면 등 각종 지원 사업을 펼친다. 오는 2월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사를 통해 재원을 마련한 후 각 사업별로 지급할 방침이다. 은수미 성남시장은 “또 한번의 성남형 연대안전기금 지원을 통해 단 한명도 고립 없고 제외되지 않게 촘촘한 핀셋지원에 총력을 다 해 나가겠다”며 “지금의 위기는 연대와 협력을 통해 반드시 이겨낼 수 있을 거라 확신하며 성남시가 늘 시민 여러분 곁에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이성윤기자



Natural Food From Yeong Yang To You

자연이 살아 숨쉬는 영양에서 전국 최고의 농·특산물을 만나보십시오



영양을 맛보다

해마다 서울광장을 붉게 수놓는 **영품 영양고추**에서, 당도 높은 사과와 자연이 길러낸 온갖 농특산물까지 기다려오신 내추릴 푸드를 만나실 때가 되었습니다.

따의 가치, 우리 것이라는 자부심, 믿고 먹는 품질로 영양만큼 대한민국적 식탁에 영양군민이 함께합니다.

www.yyg.go.kr

영양군 YEONGYANG-GUN

영양군농산물시리즈

대한민국 명품 으뜸영양고추 · 산간고랭지 영양예심천사과 · 아삭아삭 시원달콤 영양배 · 피부미인 영양복숭아 · 저농약인증 영양포도 · 해발 1,219m 영양수박 · 바타민 단단 영양고랭지체스 · 산에서 나는 고기 영양더덕 · 경상북도 우수농산물 영양버섯 · 전국 생산량 70% 영양천궁 · 고랭지 무공해 영양단국 · 땅으로 기른 영양임대배



수원시 수목에 그린태그 단다

하자검사와 관리 효율성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친환경 코팅종이로 태그 부착

수원시가 올바른 수목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식재되는 수목의 이력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담긴 태그를 부착하기로 했다.

수원시는 2021년부터 준공 및 하자검사가 진행되는 모든 공공 발주 공사에서 식재 또는 이식하는 수목에 '다함께 그린태그'를 부착하는 방식으로 실명제를 도입한다. 시 본청과 사업소, 구청 등 모든 부서에서 발주한 공사로 식재되는 나무에 공사 정보를 담은 표식을 일원화함으로써 현장에서 관련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다양한 공사로 수목이 식재되는 상황에서 일부 고사목이 발생하더라도 추진부서를 구분하기 어려웠던 점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그린태그에는 공사명과 수종명, 구역, 시행사, 식재일자, 책임부서 등의 정보가 명기된다. 특히 태그는 친환경 특수 코팅종이 재질로 제작해 하자기간이 지난 이후 별도로 수거하지 않아도 토양에서 생분해될 수 있도록 했다. 수원시는 그린태그를 부착하면 하자검사의 효율성 뿐만 아니라 연도별 식재 수종과 수량에 대한 총괄적인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올해부터 준공하는 모든 공공 발주 공사에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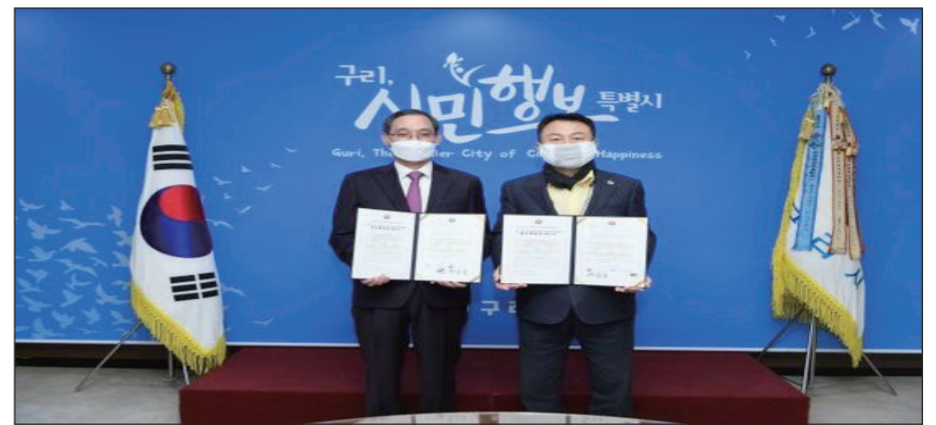


함께 그린태그를 부착하면 체계적으로 수목의 하자 보수 및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정근/기자

안성남 구리시장, 청소년 무상 영어 캠프 업무 협약 체결

용인외대부고 인프라 활용, 글로벌 인재 양성에 상호 협력하기로

구리시는 지난 14일 오후 3시 시청 민원상담실에서 용인한국외국어대학교부설고등학교와 관내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청소년 영어캠프 업무 협약식'을 진행했다. 겨울방학과 여름방학 중 관내 초등학교 6학년 사회배려계층의 영어 교육 활동을 위해 실시하는 영어캠프는 용인소재 한국외대부고와 한국 외국어대학교의 시설을 이용해 방학기간 중 5박 6일로 실시하는 캠프로 외국어 배움의 기회가 비교적 어려운 학생들에게 수준 높은 멘토 선생님들의 수업을 통해 학업 성취와 세부적인 목표와 진로를 설정하고 효율적인 자기주도학습 능력과 올바른 학습 습관 형성에 도움을 주고자 추진됐다. 주요 협약 내용으로는 양 기관은 사회배려계층의 무상 영어교육활동을 위해 상호 협력하며 구리시는 캠프 참가학



생선발 등 캠프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절차를 지원하고 외대부고에서는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인적·물적 지원, 교육생의 안전관리 등 전반적인 지도·관리감독을 맡게 된다. 협약 기간은 3년으로 양 기관이 중료 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계속 연장된다. 안성남 시장은 "본 협약을 통한 기관간 파트너십을 통해 긴밀한 업무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구리시 청소년들에게 수준 높은 영어체험 학습의 기회제공으로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는데 큰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김영근/기자

화성시,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위한 복지자원 서비스 한눈에"

15일 3천부 제작. 행정복지센터, 지역아동센터 등에 배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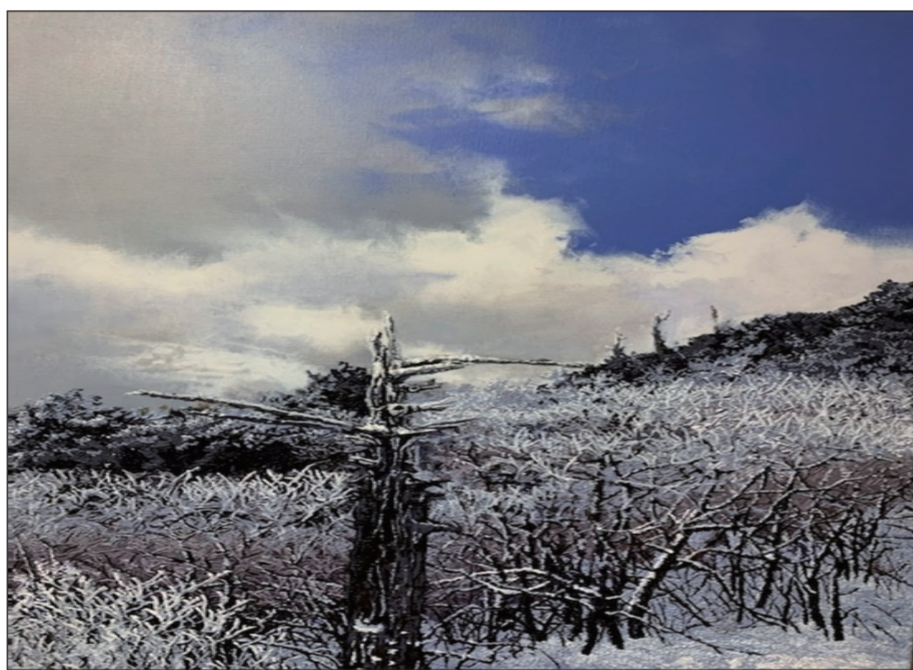
화성시가 오는 15일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을 위한 복지자원 서비스 안내서'를 발간한다. 흩어져있던 다문화 관련 각종 복지자원과 서비스를 하나로 엮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시는 관내 외국인 주민의 자녀가 2만 4,629명으로 확인됨에 따라 이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글로벌 인재로의 성장을 돕고자 이번 안내서를 기획했다. 안내서는 한국어 교육기관 현황, 한국어 기초교육 통역서비스 심리정서지원프로그램, 취업교육, 관내 다문화 및 외국인 주민 대상 프로그램 등이 수록됐다. 시는 총 3천부를 제작해 2월 말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외국인복지센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역아동센터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외국인 주민들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펼칠 계획"이라며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화성시는 지난해 2월부터 여성가족부의 지원을 받아 화성시외국인복지센터를 통해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원 지역연계 시범사업'으로 찾아가는 레인보우스쿨, 가리마스 전일제 교육 등을 운영 중이다. 김남주/기자



비전도서관 절기 전시던, 김옥봉 작가 전시회

'소한, 대한' 절기에 맞춘 설경 작품 감상

평택시 비전도서관이 리모델링으로 특별히 마련된 1층 갤러리에서 '2021년 절기 전시던'을 연중 선보일 예정이다. 자연의 변화에 따른 우리나라 24절기를 기억해보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이번 전시전에는 전통예술을 비롯해 다양한 장르의 예술 작품을 만날 수 있다. 1월 소한, 대한 절기에는 추위 속에서도 아름답게 빛나는 설경을 그린 김옥봉 작가의 아크릴화 작품이 지난 12월31일부터 오는 2월 2일까지 전시된다.



김 작가는 2017년 대한민국 미술대전에서 특선을 수상하며 다수의 개인전과 단체전을 진행한 지역 예술가로 평택미술협회에서 활발히 활동 중이다. 전시장에는 방명록을 비치해 작품을 감상한 시민들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

전시장을 둘러본 한 시민은 "이번 겨울에는 한라산 상고대를 못 봤는데, 뜻밖의 곳에서 보게 되었네요. 상고대의 생생한 모습이 냉기를 내뿜는 듯 하지만 그 속에 따뜻함이 느껴집

니다"라는 소감을 남기기도 했다. 예술을 특화 주제로 정한 비전도서관은 '일상에서 예술을 향유하는 문화공간'으로서 지역 예술가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의 예술 동호회도 전시할 수 있는 소통공간이자 문화사랑방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남주/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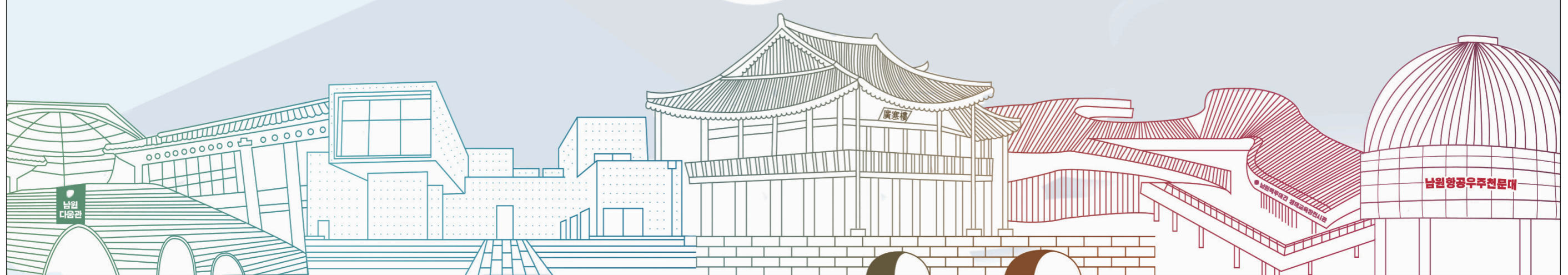
평택시 평생학습센터, '2021년 평생학습 배달강좌제' 운영

평택시 평생학습센터는 오는 18일부터 '2021년 평생학습 배달강좌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평생학습 배달강좌제는 5명 이상의 시민이 모여 희망하는 강좌를 신청하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강사가 직접 찾아가 강의를 하는 학습 수요자 중심의 평생학습 서비스다. 금년도에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우선적으로 비대면 학습으로 시작하게 되며 수강료는 무료로 1인 최대 20 시간까지 학습할 수 있다. 배달강좌제 강사로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은 평생학

습센터 강사는행제에 등록된 강사면 누구나 가능하다. 정장선 시장은 "1,000여명에 이르는 학습자가 참여하게 되는 배달강좌제와 함께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발굴을 통해 시민의 삶이 더욱 풍요로워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신청은 평생학습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접수를 통해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최만식/기자



역사가 살아 숨쉬는 관광·문화도시 그 품격을 더욱 높혀 나가겠습니다



2021년 경북, '물심양면' 청년정책 펼친다

청년애꿈 수당 시행으로 일하고자 하는 청년에게 단계별 지원

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 되면서 경상북도의 청년정책 지도도 변화하고 있다.경상북도는 작년 한 해 동안 코로나19 확산으로 청년들이 경제와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도 청년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만 해도 약 1.9만명의 청년들이 유출됐고 이중 절반 이상이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등 청년들의 지역생활이 순탄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이에 경북도에서는 2021년 '사중구생'의 각오로 새로운 꿈을 가진 지역의 청년정책들을 발굴해 '물심양면'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첫째, 청년분야 국비 확보와 청년정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경북 청년정책추진단을 새롭게 구성해 운영한다.정부는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2021년에는 270개 과제에 22조 여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을 밝혔다.이에 경북도는 270개 과제를 추진하는 32개 정부부처에 밀착 대응하기 위해 경제부처를 중심으로 청년정책을 가능한 많이 끌어올 계획이라고 전했다.

◆둘째, 일하고자 하는 청년과 일하는 청년을 위해 청년애꿈 수당을 새롭게 추진한다.경상북도 청년정책 슬로건을 탄 청년애꿈 수당은 크게 면접수당, 취업성공 수당, 근무장려 수당으로 구분되어 있다.면접수당은 면접 1회당 5만원씩 최대 6회까지 중복지원 가능하고 취업성공 수당은 중소기업에 취업 성공시 1인당 1회에 한해 50만원을 지원해준다.그리고 근무장려 수당은 중소기업에 1년 이상, 2년 미만 재직 청년에게 월 10만원을 1년간 지원한다.새롭게 추진되는 청년애꿈 수당은 중소기업 정규직 프로젝트와 청년근로자 행복카드 지원사업과 연계해, 중소기업에 근무하려는 청년들의 '취업전 - 취



업 확정시 - 초기 근로단계 - 장기 정착'까지 단계별 지원을 함으로써 청년일자리 복지의 한 축을 이루게 될 것이다.

◆셋째, 코로나 장기화로 심리적 우울감을 느끼는 청년들을 위한 심리상담을 지원하고 지역을 이끌 청년인재도 양성하는 경북 청년발전소가 운영된다.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인해 실업상태가 장기화되고 외부 활동과 소통 기회가 줄어들면서 많은 청년들이 우울증을 경험하고 있다.이에 경북도에서는 경북 청년발전소를 운영해 전문심리상담사를 통해 청년들의 '코로나블루'를 해소한다.아울러 청년들의 커리어 설정을 도와주고 지역 인재로 거듭나는 데 필요한 다양한 경험도 제공한다.특히 청년이 직접 주도해서 교육 과정을 개설하는 '청년 자조형 교육'은 청년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 역량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넷째, 코로나 상황에 대응해 청년일자리 지원이 대폭 확대되고 청년창업 지원정책도 현장에 맞게 조정한다.올해 경북도는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공모에서 363억원을 확보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국비를 확보했다.여기에 지방비를 포함해 총 801억원을 투입해 약 4,000여명의 경북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2020년에 3,100여명을 지원한 것

과 비교하면 지원 규모가 크게 늘어난 셈이다.특히 비대면·연택트 분야, 디지털 혁신·빅데이터 구축 일자리, 디지털 교육 일자리 등 특화된 일자리를 새롭게 발굴해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일자리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2019년부터 서울시와 협력해 추진 중인 도시청년 지역상생 고용사업도 올해부터는서울 청년의 경북 정착을 늘리기 위해 인센티브가 강화된다.3개월 근속시 3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최대 3차례까지 중복지원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장기 정착을 유도한다.올해는 총 43명의 서울 청년이 경북에서 활동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경북의 청년창업 지원정책에도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기존의 도시청년 시골파견제와 커플창업지원제를 청년창업 지역 정착 지원사업으로 일원화해 운영한다.이전과 가장 큰 변화는 창업지원전에 지역자원조사, 현장캠프 등을 운영해서 지역생활 부적응을 최소화하고 부부에 대한 우대 강화로 지역 정착률을 높인다는 점이다.아울러 경북 청년CEO 재도약 지원사업도 추진해서 사업에 실패한 청년들이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재창업 교육, 사업화 자금, 컨설팅 등을 제공한다.기존의 예비창업지원 사업, 초기창업패키지 사업, 청년 CEO심화 육성 사업과 연계해서 청년창업 윈스톱 지원 체계를 완벽한다.

◆다섯째, 2021년 경북 청년정책

은 청년들을 단순한 수혜자가 아니라, 정책에 직접 참여하는 주인공으로 변모시킨다.지역 청년이 직접 주도해서 청년 유입 활동을 펼치는 활동을 도에서 적극적으로 장려하면서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작년에 문경 청년들이 주축이 되어 진행된 달빛탐사대 프로젝트는 77명의 청년이 다양한 체험프로그램과 지역생활을 통해 지역경험을 쌓았고 이 중 9명은 문경 정착에 성공해서 꿈을 이루기 위해 떠돌고 있다.

올해 도에서는 이 프로그램이 계속될 수 있도록 약 4억 7천만원을 투입해서 일자리 사업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한다.또한 행정안전부와 협력해서 도내 2개 시·군에 청년 주도의 청년 유입 사업을 추가로 펼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또한 청년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좀 더 지원규모를 늘리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우선,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총 1억 5천만원의 예산을 지원한다.이를 통해 다양한 청년 공동체를 발굴하면서 청년들이 지역 사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도록 유도한다는 복안이다.아울러 청년 농부, 청년 기업인, 청년 봉사단 등 다양한 청년단체들이 지역사회에서 마음껏 봉사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예산적 지원도 병행한다.그리고 경북 청년들의 지역 활동과 사회 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해 경북 청년정책참여단의 구성원을 대폭 확대하면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오픈형으로 운영하는 한편 상주, 영주, 예천, 경산 등 시·군에 청년 소통공간을 마련한다.대학생들의 참여도 독려하기 위해 도내 대학 총학생회장단이 참여하는 소통 체계도 별도로 구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청년을 빼고 경북의 미래를 논할 수 없다.청년 중심의 혁신적인 도정으로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들을 끊임없이 개발하고 시행토록 하겠다"며 "중장기적으로는 통합신공항과 행정통합이 많은 고민을 담아, 청년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생활의 질을 높이는 청년공약, 청년통합으로 일컬어 질 수 있도록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김세기기자

김학동 예천군수, 호명 신도시 통과하는 철도 노선 신설 필요 주장



김학동 예천군수는 호명신도시를 통과하는 문경~안동 철도 노선은 도청 소재지의 발전을 위해 반드시 신설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 군수는 전국 도청 소재지 가운데 유일하게 경북도만 철도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은 곳이라며 교통중심지로서 예천군 발전의 초석을 다지고 경북 북부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동서와 남북을 연결할 수 있는 철도 노선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학동 군수는 "지역 1정치권과 힘을 합쳐 제4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에 문경(점촌)에서 도청신도시, 안동을 잇는 철도 노선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을 비롯한 인근 자치단체와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말했다.

김학동 군수는 "지역 1정치권과 힘을 합쳐 제4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에 문경(점촌)에서 도청신도시, 안동을 잇는 철도 노선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을 비롯한 인근 자치단체와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말했다.

김학동 군수는 "지역 1정치권과 힘을 합쳐 제4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에 문경(점촌)에서 도청신도시, 안동을 잇는 철도 노선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을 비롯한 인근 자치단체와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말했다.

최만식기자

대구소방, 소방 최초 미 육군 지역사회 우호 협력상 수상

대구소방과 미 육군 대구기지사령부의 다양한 협력 관계 인정



대구시와 소방청은 대구소방안전 본부가 전 세계 소방기관 중 최초로 미 육군에서 주관하는 '미 육군 지역 사회 우호 협력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2016년 상이 신설된 이래 처음으로 소방기관이 수상했으며 올해 수상한 단체 10곳 중 미국 외 국가에서 수상한 기관은 대구소방안전본부와 미 육군 대구기지사령부가 유일하다.

대구소방안전본부와 미 육군 대구기지사령부는 2006년부터 상호 협정을 맺어 지역 안전을 위한 정기적인 협의회를 개최했고 기관의 특별행사 때 서로 초청해 정기적인 친선교류를 이어왔다.특히 2014년 1월 캠프워커, 3월 캠프헨리에 화재가 발생해 대구소방이 인명피해 없이 신속하게 진압했는데 이를 계기로 현재까지 연 1회 합동 소방훈련을 실시하게 됐다.대구기지사령부 또한 2016년 대구 서문시장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력을 지원

해 화재진압을 돕기도 했다.이외에도 대구소방안전본부는 대구기지사령부에서만 연 평균 10회 이상의 환자 이송을 하는 등 상호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대구소방과 미 육군 대구기지사령부는 위 성과를 포함해 상호 소방협정을 통한 합동 체계 구축 상호 소방력 및 서비스 제공 공동 안전점검을 통한 지역 안전환경 개선 정기 협의회를 통한 지역사회 현안문제 해결 등으로 높은 평가를 받아 이번 상을 수상했다.

시상식은 14일 새벽 1시에 미 국방부에서 열렸으며 당초 대구소방안전본부장이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지난 12일 오후 2시 대구 남구 소재 캠프헨리에에서 한국의 수상기관을 위한 시상식이 별도로 진행됐다.이 날 시상식에서는 미 육군성 장관을 대신해 블랑코 대령이 대구소방안전본부에 상을 전수했다.박정원 대구소방안전본부 소방행정과장은 "앞으로도 대구기지사령부와의 교류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안전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남영경기자

대구시립소년소녀합창단 2021 어머니합창교실 제1기 단원 모집

대구시립소년소녀합창단과 함께 하는 동행 프로젝트

2021 대구시립소년소녀합창단과 함께하는 동행 프로젝트

어머니 합창교실 단원모집

2021년 대구시립소년소녀합창단은 시민들과 함께하는 동행 프로젝트로 대구지역 어머니들의 건전한 여가생활과 합창을 통한 사회활동 참여 확대를 위한 동행 프로젝트로 어머니합창교실 제1기 단원을 모집한다.이번 합창교실은 코로나19로 인해 가족들이 집안에서 있는 시간이 많아짐에 따라 어머니의 역할이 커지면서 쌓인 부담감과 피로감을 음악을 통해 해소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대구시에 거주하는 만 35세~55세 미만 어머니들은 누구나 응시 가능하며 합창단 활동 경력이 5년 이상이면 60세까지 지원할 수 있다.

실기 전형을 통해 모집 정원 내에서 고득점 순으로 합격자를 선발하고 실기전형은 이수인 작곡의 '별'을 부르면 된다.모집정원은 소프라노1, 소프라노2, 알토 총 40명이며 개강일로부터 14주 동안 주1회 정기연습 및 특별연습이 있을 예정이다.

강습비는 무료이며 김유환 예술감독 및 상임지휘자를 비롯해 대구시립소년소녀합창단 스태프들의 전문적인 지도를 받고 수료음악회, 정기연주회 특별출연 등 공연에 참여할 수 있다.접수기간은 1월 18일부터 1월 22일 오후 5시까지이며 실기전형은 1월 29일 10:00 대구시립소년소녀합창단 연습실에서 진행한다.

응시에 필요한 서류는 대구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에서 게시되어 있으며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이메일로만 접수 받는다.

남영경기자

봉화군 농특산물 쇼핑몰 '봉화장터' 설 맞이 이벤트 진행

경북 봉화군 농특산물 쇼핑몰 '봉화장터'는 2021년 설을 맞이해 1월 11일부터 2월 14일까지 35일간 수제조청, 사과 등 20개 품목에 대해 가격할인 및 10+1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이벤트는 천혜 자연의 고장 봉화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을 좀 더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도록 소비자들에게 특별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산물이 판매되고 있으며 다양한 소비처 및 판로확대를 통해 농가 소득향상을 지원하고자 2007년부터 봉화군에서 운영하고 있다.봉화장터 관계자는 "지역 농업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산업 전반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이벤트는 소비자에게 저렴한 가격에 고품질 지자체 농산물을 제공하고 판매자에게 경제적 위기를 위한 계기를 마련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설맞이 할인 이벤트

이벤트기간 : 2021.01.11(월)~02.14(일)

감사의 마음을 선물로 전하시고 할인혜택도 받아주세요~

회원쿠폰 : 주문결제시 자동적용 (예산소진시까지, 1인1회1회, 4시(16시) 이후 결제 제외) *혜택아감일 : 02월 05일까지*

최만식기자

부산시, '원도심 역사의 발자취를 찾아서' 발간

격동의 세월을 겪은 부산 원도심의 생생한 문화유산 답사기

부산시는 원도심 문화유산 답사기 '原도심 역사의 발자취를 찾아서'를 발간한다고 밝혔다.

'原도심 역사의 발자취를 찾아서'는 원도심 문화유산을 부산포의 역사 초량동 산복도로 원도심 근대유산 대중문화 속 부산 피란민의 삶과 먹거리 피란수도 심장부 피란민 마을 근대 조선업 발상지 등 8개 주제로 나누고 각각의 문화유산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사진 자료 등을 담고 있다. 또한, 원도심 문화유산이 가지고 있는 역사성을 현장감 있게 전달하기 위해 집필자가 직접 답사하며 알게 된 역사 이야기와 느낀 점 등을 상세하게 서술하고 있으며 시민들이 원도심 문화유산을 손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부산 원도심 문화탐방 지도'를 부록으로 실었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이는 시민들에게 부산 원도심의 문화유산에 대한 생생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쉽게 쓰인 답사기이다"며 "일제강점기에 나라를 잃은 서러움과 6·25전쟁 피란민의 고된 삶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원도심 문화유산 답사를 통해, 어떠한 역경도 극복해 온 우리 부산사람들의 삶을 재음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남궁영기기자



부산 원도심은 역사가 만들어낸 다양한 삶의 현장이다. 구마구비 돌아가는 산복도로만 걸어나 격동의 세월을 겪은 이곳에 펼쳐진 문화유산을 찾아 떠나보자.

김경수 도지사, 하이퍼튜브 기술개발 현장 방문

김지사 "경제·사회·문화적 영향 함께 연구, 수도권 집중 해소 균형발전 패러다임 전환 기대"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하이퍼튜브 기술개발 현장을 찾아 미래 친환경 교통모빌리티로서 하이퍼튜브 체계 연구개발 및 구축에 대해 논의했다.

김 지사는 13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에 위치한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K-뉴딜본부 하이퍼튜브 연구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기술 개발 현황을 청취하고 개발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하이퍼튜브'란 아진공 튜브 안을 최고 시속 1,200KM의 속도로 주행하는 신개념 초고속 육상교통 시스템이다. 공기저항을 최소화해 기존 고속철도의 마찰저항 및 공기저항에 따른 속도한계를 극복해 서울에서 부산을 20분 만에 주파할 수 있는 기술이다.

기술 개발이 완성되면 전국을 X자 네트워크로 구축해 주요 도시 간 30분대 이동이 가능하며 수도권 집중 및 지역 불균형 문제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관계자로부터 기술 개발 현황을 청

취한 김 지사는 "수도권이 압축할 수 있었던 것도 좁은 교통망으로 공간이 압축된 덕분"이라며 "수도권 집중 완화 관련 패러다임도 크게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전했다. 또한 "향후 하이퍼튜브 테스트베드와 연계한 실증사업 등 설치 이후 활용가능성이나 필요성을 고려해 입지 선정 평가 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겠다"고 밝히며 현대로템, 한국전기연구원 본원이 위치한 경남을 포함한 동남권에 유치 의사를 나타냈다. 지난해 11월 철도연과 현대로템은 수소전기열차 연구협력을 위한 협약을 맺었으며 경남도 역시 이달 중 철도연과 친환경 미래철도 구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민주당 K-뉴딜본부 이광재 본부장, 양항자, 맹성규, 이소영 의원이 함께 했으며 국토교통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진흥원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향 등에 대해 미리 연구하는 게 필요하다"며 "토지가 전체적으로 연결되면 수도권 집중 문제나 국가균형발전 관련 패러다임도 크게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전했다. 또한 "향후 하이퍼튜브 테스트베드와 연계한 실증사업 등 설치 이후 활용가능성이나 필요성을 고려해 입지 선정 평가 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겠다"고 밝히며 현대로템, 한국전기연구원 본원이 위치한 경남을 포함한 동남권에 유치 의사를 나타냈다. 지난해 11월 철도연과 현대로템은 수소전기열차 연구협력을 위한 협약을 맺었으며 경남도 역시 이달 중 철도연과 친환경 미래철도 구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민주당 K-뉴딜본부 이광재 본부장, 양항자, 맹성규, 이소영 의원이 함께 했으며 국토교통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진흥원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최광용기자

경남소방, 지난해 매 4.4분마다 도민과 함께했다

1일 평균 328건의 소방활동 실시, 매 4.4분마다 도민의 어려움을 해결

경상남도 소방본부는 지난해 1일 평균 328건의 소방활동을 펼쳐 매 4.4분마다 도움이 필요한 도민의 곁에서 함께했다고 밝혔다. 소방활동 통계 분석결과 지난해 총 63만376건의 신고가 접수되어 20만9,432회 출동실적을 기록했다. 분야별로는 화재 1만 2,962건, 구조 5만9,647건, 구급 13만 6,652건, 헬기 출동 171건이다.

화재출동은 총 1만2,962건으로 오인 및 단순출동을 제외한 실제화재는 2,605건이었다. 사망 18명, 부상 77명 등 총 95명의 인명피해와 329억여 원의 재산피해가 집계됐다. 지난해 2019년 대비, 사상자가 5% 감소했으나 재산피해는 60%가 증가했다. 이

는 공장과 창고 등 산업시설에서의 피해가 주된 원인으로 분석된다. 구조와 생활안전분야는 총 5만9,647회 출동했으며 교통사고 등 일반 구조분야는 1만6,974회의 출동으로 4,501명을 구했고 자연재해 등 생활안전 분야는 2만6,027건을 처리했다. 이외 오인 등 단순출동은 1만6,646건이었다. 지난해 2019년 대비, 출동건수는 1.9%가 감소했다. 이는 코로나19로 야외활동이 감소해 사고접수가 줄어든 것으로 분석된다. 구조인원은 교통사고가 가장 많았고 실내 갇힘 및 산악사고순이었다. 구급분야는 총 13만6,652회 출동해 7만4,152건을 이송 처리했으며 이송인원은 7만5,668명이었다. 지

난 2019년 대비, 출동건수는 2.3%가 증가했다. 이는 코로나19 관련 확진자 및 의심자의 이송이 증가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이송인원은 질병이 가장 많았고 낙상 등 일상사고와 교통사고가 그 뒤를 이었다. 헬기는 171회 출동에 대형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 김조일 경남소방본부장은 "현장출동 증감사유와 특성을 세밀히 분석해 사고예방과 현장대응 등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변화를 만들어 가겠다"며 "특히 도민이 주로 요청하는 119서비스에 지원을 강화해 안전편의와 만족도를 향상시키겠다"고 밝혔다.

최광용기자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들어보셨나요? 신청 서두르세요

오는 2월 5일까지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 신청, 자연휴양림 등 이용 가능

거제시는 산림휴양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신청 대상자가 신청에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 홍보에 나서고 있다.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이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수당 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을 대상으로 산림청에서 제공하는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이다.

선불전자지급방식의 이용권 형태로 1인당 10만원씩 지원하며 자연휴양림, 치유의 숲 등 산림복지시설에서 사용가능하다. 신청방법은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 우편이나 인터넷으로 접수하면 된다.

대상은 개인, 사회복지시설 단체로 구분되며 산림복지이용권 홈페이지에서 이용권 발급신청서와

신청인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면 된다.

산림청은 올해 총 4만명의 산림복지바우처를 제공할 계획으로 이용권에 선정된 자는 올해 11월 말까지 자연휴양림, 숲체원, 치유의 숲 등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자로 등록된 229여개의 산림복지시설에서 숙박, 프로그램 등을 체험할 수 있다. 김형호 산림복지과장은 "다양한 산림복지정책을 도입하고 바우처 카드 사용처인 거제 자연휴양림에 대한 시설관리와 다양한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도록 힘쓰겠다"며 "많은 분들이 수혜를 볼 수 있도록 접수기간 내 신청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동희기자



경상북도 GYEONGSANGBUK-DO

남원시, 2021년 새해 이견 꼭 알아두세요

달라지는 제도, 세제·부동산 외 8개분야 49개사업

남원시는 2021년 새해를 맞아 시민들이 알아야 할 유익한 정보를 담은 '2021년 남원시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발간책자는 제도적으로 변경된 사항과 시민들의 실생활에 유용한 정보를 간략하게 제공하고 있으며 세제·부동산, 재난·안전, 농·축산·식품, 문화·관광·교육·체육, 복지·여성·보건, 건설·교통, 경제·산업, 환경·녹지, 일반행정 등 9개 분야 49개 내용으로 구성됐다.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 주택 가격이 1억 5천만원 이하의 100% 감면, 3억원 이하의 50%의 주택 취득세를 감면한다. '풍수해보험 지원율을 상향 조정'한다.

기존 주택·온실 보험료의 52% 지원율을 85%로 상가·공장 보험료의 59% 지원율을 87로 상향한다. 또한, 입산부 안심+ 119구급서비스를 전라북도 입산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지역을 확대한다. 2020년 처음 시행한 '농민공익수당'을 2021년부터 '농어민 공익수당'으로 양봉농가와 어가까지 확대 지원한다.

전북도내 가축시장에서 거래하려는 소 및 그 어미 소에 대한 전자확인 검사비 일부 지원이 신설됐다. 동물학대를 방지하고 개물림 사고 시 소유자 책임 강화 등을 위해 2021년 2월 12일부터 '동물보호법'이 개정·강화된다. 동물학대 및 유기한 자의 처벌을 강화했으며 맹견 소유자 책임강화에 대한 부분이 신설된다. 청년들의 소통·휴식·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소통공간 '청년마루'를 운영한다. 청년마루에는 1층 회의공간, 2층 스튜디오 공간이 조성된다.

주민등록상 남원에 거주하는 만 19~39세 청년 5인 이상으로 구성된 '청년동아리'에 활동비 100만원을 지원한다. 기존 청소년 동반 가족여행객에게만 도내 1박 이상 숙박 시 지원했던 여행비 지원 대상을 가족, 친구, 동창까지 확대한다. 순차적으로 실시했던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고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전면 시행한다. 북한 이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관내에 주소를 둔 북한이주민 중 신규 자격증 취득자에게 1회에 한해 50만원의 현금지원이 신설됐고 심한 장애인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해 상수도 요금은 최대 월 3,550원, 하수도 요금은 최대 월 1,730원을 지원한다. 결혼 이민자에 대한 지원도 신설되어 관내 주소를 둔 결혼이민자 중 2021년 이후 국적취득자를 대상으로 1회에 한해 30만원의 수수료를 지원하고 2021년 이후 검정고시 또는 Tpick 취득자를 대상으로 검정고시는 10~50만원, Tpick은 10~40만원을 지원한다. 난임부부를 위해서는 난임 진단 검사비를 1회에 한해 최대 30만원 지원하며 생후 14일~35일 영유아를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신설한다. 전주시에서만 시범사업으로 추진되었던 광역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지원이 남원시에서도 가능하게 됐다.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해 걷거나 자전거로 이용한 거리만큼 마일리지 적립되어 대중교통비를 최대 30%까지 절감할 수 있다.

청년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위해 1인당 30만원씩 지원하는 청년지역정착 지원사업은 분야, 지원인원 등을 확대해 보다 많은 청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비대면 서비스의 확산을 장려하기 위해 중소기업에 대상으로 화상회의, 재택근무 등 비대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최대 400만원 지원한다. 쓰레기를 줄이고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무색 투명페트병, 골판지지를 이용해야 한다. 남원시 관계자는 "2021년을 맞아 달라지는 제도를 업무 담당자가 직접 설명하고 전광판, 유튜브,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적극 홍보해 다양한 정책들이 시민들에게 한층 더 친숙하게 전달되도록 하고 앞으로도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급발급 수 있게 된다. 읍·면 행정복지센터 중식시간 민원이 중단되어 점심 시간에 민원서류 발급을 원한다면 12시 이전에 예약하거나 민원24 홈페이지를 이용해야 한다. 남원시 관계자는 "2021년을 맞아 달라지는 제도를 업무 담당자가 직접 설명하고 전광판, 유튜브,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적극 홍보해 다양한 정책들이 시민들에게 한층 더 친숙하게 전달되도록 하고 앞으로도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남출기자

군산시 반부패 익명신고시스템 '레드휘슬' 도입

공무원 부정부패 및 갑질 안심하고 신고하세요

군산시는 공직비리신고 활성화 및 청렴한 조직 문화 정착을 위한 반부패 익명신고 시스템 '레드휘슬' 18일부터 도입·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는 익명신고시스템을 도입하면서 군산시의 명예를 위해 구성원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준칙으로 '부정부패행위', '부당한 업무지시', '위법 부당한 예산집행'을 하지 않고 그런 행동을 하는 이들은 용납하지 않는다는 안내코드를 제안해 공직자로서 스스로 정직하게 행동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이를 실천하기 위해 익명신고시스템인 '레드휘슬'을 도입했다.

기존 신고 시스템의 보안 취약점을 보완한 본 시스템은 IP추적방지 등 최신기술을 바탕으로 신고자의 익명성이 철저히 보장된 신고시스템이다. 제보자는 청탁, 금품수수, 부당업무지시 등 공직내부 비리행위와 최근 이슈가 되는 갑질, 성희롱 등 비윤리적 행위에 대해 PC뿐 아니라 스마트폰을 이용해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공무원과 시민 누구나 이용

할 수 있다. 신고절차는 군산시 홈페이지 익명신고시스템 배너를 클릭, 모바일로 '레드휘슬'을 검색해 헬프라인 앱을 설치하거나, 직접 레드휘슬 웹사이트에 방문 또는 스마트폰으로 군산에서 배부할 예정인 익명신고 QR코드가 인쇄된 '클린스티커'를 스캔 접속, '군산시'를 검색한 후 신고할 수 있다. 접수된 신고는 24시간 실시간으로 시 감사담당관 담당자에게 통보되며 신고내용에 대해서는 담당자 1명만 접근권한이 있어 신고사항은 철저한 보안 속에 신속하게 조치가 이뤄지게 된다. 신고자는 레드휘슬 웹사이트에 접속해 패스워드를 입력하고 처리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익명상태에서 감사담당관 담당자와 의사소통도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부패행위에 대한 공무원과 시민의 감시기능이 강화되어 공직사회의 부정과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는 등 강력한 내부통제와 부패방지 효과로 청렴 조직으로서의 이미지도 한 층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밝혔다.

김현태기자



내셔널 지오그래픽 "숙취해소엔 전주 콩나물국밥"

내셔널 지오그래픽 UK, 숙취에 좋은 전세계 9가지 음식 중 하나로 전주 콩나물국밥 소개

문화, 예술, 탐험의 교과서로 불리는 세계적인 매체 '내셔널 지오그래픽'이 전 세계를 대표하는 숙취해소 음식으로 전주 콩나물국밥을 꼽았다. 14일 전주시에 따르면 내셔널 지오그래픽 UK 사이트는 '숙취에 좋은 전 세계 9가지 음식' 중 하나로 전주 콩나물국밥을 소개했다. '숙취도우미: 전세계의 맛있는 치료제'의 저자인 로렌 쇼키 음식평론가는 "대한민국의 술 문화는 해장국이라는 새로운 음식의 장르가 탄생했을 정도로 확실히 자리잡고 있다"며 "파, 고추 등을 썰어 넣은 전주의 콩나물 해장국은 술 마신 다음 날 아침에 먹는 매우 인기 있는 음식"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전주 콩나물국밥 외에 세계적인 숙취해소 음식으로 캐나다의 블러디메리, 하와이의 로코코코, 이탈리아 미드나잇스파게티 등을 꼽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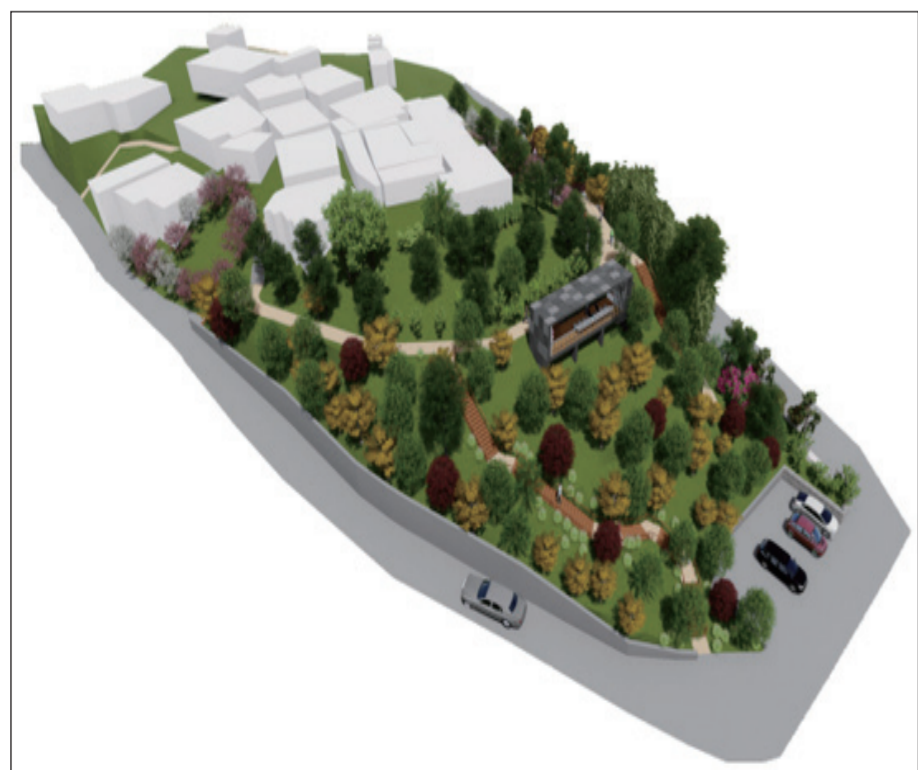
다. 이에 앞서 전주 콩나물국밥은 지난 2017년에도 세계적인 뉴스 전문 채널인 미국 CNN으로부터 한국음식을 대표하는 10선 중 하나로 언급됐다. 영국 출신 식도락 작가 그레이엄 홀리데이는 "새우젓과 김치, 오징어젓갈들이 반찬으로 같이 오르면 특히 숙취로 근육을 치르는 여행객들에게 다음 날 아침 훌륭한 술국이 자 원기회복을 위한 음식"이라고 극찬했다. 전주시 관광거점도시추진단 관계자는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인 전주의 음식은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의 음식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며 "전주 콩나물국밥과 전주비빔밥 등 한식과 전주관찰사밥상 등 미식콘텐츠와 문화, 역사적 자원을 활용해 글로벌 관광거점도시로 홍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일기자



용머리고개에 '산책하며 책 보는' 숲 조성

산책로 단풍숲, 조경시설, 운동시설, 숲도서관 등 구축해 삶의 질 높여



국가 차원의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되는 전주시 서완산동 용머리 여의주마을에 산책하며 책을 볼 수 있는 숲이 조성된다. 전주시는 서완산동 일원의 용머리 여의주마을에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오는 12월 까지 총사업비 15억 2300만원을 투입해 '생태숲공원'을 조성한다고 15일 밝혔다. 생태숲공원은 서완산동 1가 35-1번지 일원 2183㎡ 부지에 산책로와 단풍숲, 조경시설, 운동시설, 숲도서관 등이 포함된 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특히 33㎡ 규모로 지어지는 숲도서관의 경우 탁 트인 주변을 한눈에 보면서 책을 읽을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조성된다. 시는 오는 3월까지 숲도서관 건립을 위한 실시시설계용역을 추진한 뒤 4월부터 도서관을 포함한 생태숲공원 조성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시는 생태숲공원이 조성되면 당초 잡목이 무성해 접근성이 떨어져 있던 공간이 산

책로와 휴게마당이 어우러진 자연형 공원으로 변신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 2018년도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용머리 여의주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국비 45억원을 포함한 총 75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올 연말까지 노후주택 정비, 가로환경 개선, 공공임대주택 공급, 주민공동이용시설 건립, 주차장 조성, 마을공동체 육성 등 다양한 내용으로 추진된다. 국승철 전주시 도시재생과장은 "용머리 여의주마을은 그간 가로환경 개선사업, 노후 주택 정비사업, 다양한 주민공동체 활동이 펼쳐지면서 활력이 불어넣어지고 있다"며 "생태숲공원의 경우 숲도서관을 통해 지역 주민들이 마을을 한 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전망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일기자

장수군, 여성인재 DB 구축 '여성인재 찾아오'

장수군이 여성의 군정 참여를 높이기 위해 '여성인재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는 여성위원의 위촉비율을 40%로 의무화한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다양한 분야의 여성인재풀을 확보하고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한다는 취지다.

군은 다음달 28일까지 여성인재를 연중 수시로 집중 모집하고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숨은 여성인재를 모집·발굴한다.

등록 대상은 교육, 정치·행정, 법률, 경제, 건축·토목, 사회복지, 보건·의료, 농림축산, 문화·체육 등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경력자 또

는 자격증 소지자이다. 군은 등록 신청자의 자격확인 후 각종 위원회 후보로 추천해 여성위원 위촉률을 향상하고 여성의 사회 참여도를 높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여성인재 등록 희망자는 장수군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주민복지실 여성청소년팀으로 이메일 또는 우편,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조금현 주민복지실장은 "여성인재 DB를 구축해 위원회 구성 시 여성위원 후보자 추천 등 군정 발전에 유용한 정보로 활용할 계획"이라며 "군정 전반에 여성인재의 참여를 늘려 정책결정 과정에 성평등적 시각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곽승오기자



전남도, 1월 전통주 '나누우리 막걸리' 선정

순천서 생산, 햅쌀·천연암반수로 빚은 프리미엄 막걸리

전남도는 1월을 대표할 남도 전통술로 순천주조의 '나누우리 막걸리'를 선정했다. 막걸리의 이름인 '나누우리'는 나누면서 하나가 된다는 의미로 우리쌀 소비 촉진과 판로확대를 위해 순천농협과 순천주조가 손을 잡고 만든 프리미엄 막걸리다. 막걸리에는 순천지역에서 생산된 햅쌀 100%가 주원료로 사용되며 첨가물을 최소화해 우유처럼 하얗고 목 넘김이 부드럽다. 알코올 도수는 6%로 기분 좋은 단맛을 느낄 수 있다. 특히 푹 쏘는 청장감과 담백하고 깔끔한 뒷맛이 특징이며 숙취가 적고 트림이 나지 않아 젊은 층과 여성에게 인기를 얻고 있다. '나누우리 막걸리'는 국가지정 술 품질인증을 받았으며 제1회 대한민국 주류품질회

에서 탁주부문 금상을 수상했다. 또 2010년 남아공월드컵 16강 대표 막걸리와 2013년 순천만정원박람회 공식주로 선정되는 등 술맛에 대한 우수성을 입증 받았다. 가격은 20병 들이 1상자에 3만원으로 전화로 구입할 수 있다. 조병준 순천주조 대표는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인의 술맛을 사로잡는 막걸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강종철 전라남도 농식품유통과장은 "농업과 함께 성장한 전통주는 단순한 술이 아니라 민족의 삶과 철학이 담겨 있고 맛과 전통을 지켜오고 있다"며 "한 해가 시작되는 1월 나누우리 막걸리 한 잔을 나누며 풍요와 성공을 기원하고 다짐해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만기자

순천시, 2021년 SNS 청년기자단 모집

1월 18일부터 2월 6일까지 모집, 활동 원고료 및 각종 혜택 부여

순천시는 시의 다양하고 생생한 소식을 시민의 눈높이로 직접 취재하는 SNS 청년기자단을 오는 18일부터 2월 6일까지 20일간 모집한다. 순천시 SNS 청년기자단은 신속한 시책 홍보 및 시민공감형 콘텐츠 발굴을 위해 소셜미디어 활용 및 트렌드에 민감한 만19~39세의 청년 15명 내외로 구성되어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간 활동하게 된다. 지원대상은 전라남도 또는 광주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직장·학교 등 활동공간이 순천에 있는 대학생 또는 청년으로 사진·동영상 등 촬영에 재능이 있고 글 쓰는 데에 관심이 많은 사람, SNS 운영이 활발하고 팔로워·친구가 많은 사람이면 지원 가능하다. 청년기자로 선발되면 월 1~3건의 SNS 포스팅을 작성해 순천시의 다양한 콘텐츠를 신속하고 재치있게 시민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되며 포스팅 작성 건당 3~4만원의 원고료와 기자증이 지급되며 순천시 주요 관광지 무료입장 및 활동 우수자 연말 표창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지원희망자는 관광·맛집·여행, 문화·축제, 생태·환경, 시책·시정소식 중 1개 분야를 선택해, 신청서와 함께 샘플 기사를 작성해 전자우편으로 순천시 홍보실로 제출하면 된다. 순천시 관계자는 "SNS 청년기자단 운영으로 시민이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순천형 SNS 생태계를 구축해 신속한 시책 홍보와 공감 소통을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2021 순천시 SNS 청년기자단 모집
Youth Reporter

시민이 알고자하는 정보를 시민의 눈높이로 직접 취재하는 순천시 SNS 청년기자단을 새롭게 모집합니다.

모집내용

- 모집규모: 15명 내외
- 신청자격
 - 광주 전라남도 내 거주 또는 활동공간(직장, 학교 등)이 순천에 있는 청년(만 19세~39세) 및 대학생
 - 사진, 동영상 등 촬영에 재능이 있고 글 쓰는 데에 관심이 많은 사람
 - SNS 운영이 활발하고 팔로워·친구 등이 많은 사람

활동내용

- 활동기간: 2021. 3월 ~ 12월(10개월)
- 활동분야: 4분야 (①관광·맛집·여행, ②문화·축제, ③생태·환경, ④시책·시정소식)
- 활동내용: 매일 1~3건, 담당 분야 SNS 포스팅 게시

혜택

- 취재 활동 원고료 지급
- 기자증 발급 및 관광지 무료입장
- 우수활동자 연말표창 등

문의사항

- 순천시 홍보실 미디어홍보팀 ☎749-5728
- 순천시 홈페이지 공고 게시란 참고

접수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2021. 1. 18.(월) - 2. 6.(토)
- 홈페이지에서 신청서서식 다운로드 및 작성 후, 담당자 이메일(suki@korea.kr)로 제출

순천시

광양시, 저출산 극복을 위해 복지시책 펼쳐

임신·출산·양육, 광양시가 책임진다: 난임부부 시술비, 양육비, 자녀 출산용품비 지원 등

광양시가 저출산으로 인한 사회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임신·출산·양육 전반에 걸쳐 다양하고 든든한 복지시책을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다. 시가 올해 추진할 주요 사업으로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및 가임여성 검진·관리 신생아 및 모성 건강증진을 위한 비용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등으로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 등 특정 시술이 필요한 난임부부 지원 관련 소득기준을 기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서 180% 초과까지 확대 지원하는 등 난임부부의 임신을 도와 행복한 가정을 영위하게 하고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자 한다.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위해 결혼 1년 이내 신혼부부에게 A형 간염 검사와 28종 검사를 무료로 해주고 보건소에 임부 등록 시 풍진 검사 외 26종 검사도 무료로 실시한다. 아울러 임신 초기부터 12주 이내까지는 3개월분의 엽산제, 임신 16주부터 분만 전까지 5개월분의 철분제를 지원한다. 지역 내 임신부의 산전 건강관리를 위해 임신 20주 이상 임신부에게 교통비 10만원, 출산 후 1년 이내 출생신고 시 양육비를 첫째, 둘째아 500만원, 셋째

아 1,000만원, 넷째아 이상 2,000만원을 지원한다. 전라남도 신생아 양육비는 2021년 출생아부터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 지원하고 산후조리 비용은 지역 내 산후조리원 이용 시 소득기준에 따라 차등 지원하며 조리원을 이용하지 않은 산모도 20만원을 지원한다. 지역 내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에 광양사랑상품권 100만원(2회로 나눠 지급)한다.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해 지역 내 모든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직접 방문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며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표준서비스 이용금액의 90%를 지원한다. 신규사업으로 도내 1년 이상 주소를 둔 난임부부 이자 건강보험 적용횟수 종료자에게 추가로 1회당 20~150만원의 난임시술 비용을 연 2회 지원하며 셋째아 이상 다자녀 출산가정에는 육아용품 구입비 50만원을 지원한다. 저출산에 따른 인구감소에 대응하고 청년층의 결혼 독려를 위해 청년부부 결혼 축하금 200만원을 지급한다. 대상은 2021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한 청년부부로 혼인신고 6개월 후 읍·면·동에서 신청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 밖에 광양시는 '젊

은 도시 광양'에 맞는 맞춤형 시책들을 추진해 시민 만족도를 높이고 저출산 및 인구감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나승도 통합보건과장은 "앞으로도 저출산 극복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대한민국 최고의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 광양을 만드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난임부부 한방치료 지원사업 신청하세요

신청기간: 2021. 1. 18. (월) ~ 2. 17. (수) 100%

신청대상: 임신 18개월 이상 - 난임 진단(4개월) 후 6회 이상 치료 받은 부부 (난임 원인이 불명인 경우, 임신 18개월 이상임) (난임 원인이 불명인 경우, 임신 18개월 이상임)

신청방법: 임신 18개월 이상임 - 난임 진단(4개월) 후 6회 이상 치료 받은 부부 (난임 원인이 불명인 경우, 임신 18개월 이상임)

신청처: 순천시 보건소 2층 보건사업팀

문의: 749-5728

“인피니토뮤지움” 신안군 1도 1뮤지움 중심에 선다

1004섬 신안군은 핵심전략사업 1도 1뮤지움정책의 중심에 서 있는 “인피니토 뮤지움”이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다고 14일 밝혔다. 신안군 자은면 둔장해변에 건립 예정인 ‘인피니토 뮤지움’은 새로운 미술 장르인 야외조각과 미디어 전시 콘텐츠 등을 통해 지속적인 관람 동기를 부여하고 예술가의 창작지원에 기반해 국제레지던스 미술관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인근 관광자원으로 무한의 다리, 둔장해변, 신안자연휴양림이 있고 리조트 및 호텔 2개소가 건립 중에 있어 지역문화산업 및 관광산업 부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신안군은 기대하고 있다. 특히 1004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신안군은 각 섬 주민들의 문화복지와 경제 유발효과 및 관광 활성화를 이끌어갈 중심 사업으로 미술관 박물관을 꼽았다. 최근 자은에 문을 연 ‘둔장마을미술관’이 좋은 사례다. 2020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작은미술관 공모사업에 선정된 신안군은 마을주민들의 뜻에 따라 노후 된 마을회관을 리모델링해 ‘둔장마을미술관’으로 오픈했다. 둔장마을회관은 1970년대 초반 새마을운동이 한창일 때 마을 사람들이 직접 나무와 모래를 나르고 벽돌을 올려 만든 공간으로 50년 동안 마을의 크고 작은 행사가 사용됐던 마을의 중심공간이었으나 건물이 노후되어 한동안 방치되어 있었던 곳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신안군의 노력으로 50년 만에 미술관으로 재

탄생돼 마을 사람들의 사랑받는 중심공간으로 다시 자리 잡게 됐다. 신안군 1도 1뮤지움은 100년 이상 교육의 요람이었던 학교를 제일 많이 활용하고 있다. 각 섬에는 육지에 귀중한 자산으로 남아 있다. 그 중심에 ‘학교’가 있다. 신안군에서는 섬마을 빈 학교를 매입해 그 지역주민과 관광객에게 여전히 가치 있는 미술관 박물관 전시관 기념관 등으로 재생태 의미 있는 공간으로 역할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이세돌 박물관, 에로스서각 박물관 등이 있다. 신안군은 오래전 건립된 칠새박물관·소금박물관·조희룡기념관 등은 전시 콘텐츠와 프로그램을 보완해 더욱 적극적으로 그 가치를 발굴하고 보존해 문화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1도 1뮤지움 사업으로 추진 중인 24개 박물관미술관 중 앞으로 추진될 대표적인 뮤지움 “동아시아 인권평화미술관”은 평화의 상징 김대중대통령의 고향 하의도와 닿아 있는 신안 출신 민중예술가 흥성담의 고향 신의도에 신안에서 시작된 농민토지탈환 역사가 바탕을 둔 ‘동아시아의 인권과 평화의 가치를 예술로 꽃피우자’ 추진중이며 “인피니토뮤지움”은 세계적인 건축가 마리오 보타가 무상으로 설계에 참여해 미래의 가치를 담보할 국제적인 현대미술을 담은 공간으로 준비 중이다. 그리고 세계적인 화가 김환기 고

택 인근의 국내외에서 찾아 볼 수 없는 가장 아름다운 ‘플로팅뮤지움’을 야심차게 준비 중이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인피니토뮤지움”을 비롯한 규모 있는 신축 뮤지움에서는 1도 1뮤지움의 전체 전시기획과 교육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한편 국립목포대학교와 아시아문화전당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 등과 연계해 전남의 미래산업인 ‘문화예술관광’을 이끌어 갈 젊은 전문가들을 육성 미래가 보장된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신안의 섬과 바다 음식 등 천연자원과 아름다운 관광자원을 더욱 가치 있고 경쟁력 있는 자원으로 만들어 가는 중심적인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기석기자



광주공동체에 헌신한 ‘영웅들’ 기린다

광주시, 명예의 전당 제막식... ‘시민대상’ 수상자 등 헌액

광주공동체를 위해 헌신한 ‘영웅들’을 기리기 위한 명예의 전당이 문을 열었다. 광주광역시 14일 오전 시청 1층에서 이용섭 시장, 김용집 광주시의회 의장, 전년도 시민대상 수상자, 구제길 광주언니소사이어티 회장, 윤택림 광주시 시장자문위원회 사무총장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광주시 명예의 전당’ 제막식을 개최했다. 광주시 명예의 전당은 사회공헌자를 예우하고 시민들에게 사회공헌활동을 공유해 광주지역의 사회공헌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조성됐다. 총 3개의 구역으로 나눠져 있는 명예의 전당은 우선 1987년부터

매해 5개 분야에서 지역발전을 위해 공헌한 시민·단체를 발굴해 시상하는 ‘시민대상’ 수상자를 위한 공간이 마련됐다. 현재 이 구역에는 역대 시민대상 수상자 153명이 헌액되었으며 향후 수상자를 헌액하기 위한 자리는 비워진 상태다. 뜻깊은 나눔을 통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아너소사이어티’ 회원을 위한 공간도 있다. 이 공간에는 광주시 아너소사이어티 회원 114명의 이름이 헌액돼 있다. 광주시는 남은 공간은 지역사회의 나눔과 연대를 실천하며 따뜻한 울림을 주는, 선한 영향력을 전하는 평범한 시민을 발굴해 채

워갈 예정이다. 이를 통해 사회공헌에 대한 인식이 ‘위대한 사람들의 특별한 행보’가 아닌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 속 한 걸음’으로 변화하는 계기가 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용섭 시장은 “광주학생할인운동, 5·18민주화운동처럼 시대의 어둠을 밀어내고 새로운 빛을 가져온 사람들이 언제나 우리 주변의 평범한 이웃이었다”며 “명예의 전당이 선하고 가슴 따뜻한 보통시민들의 뜻깊은 발자취를 기록하고 기억하는 공간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김복윤기자



목포시, 굵직한 공모사업으로 발전의 지렛대 마련

목포시가 굵직한 공모사업으로 발전의 지렛대를 마련하고 있다. 공모사업은 지역발전의 획기적 기회로 작용할 수 있어 지방자치단체간의 경쟁이 치열하다. 정부에서도 자치단체간의 선의의 경쟁을 통해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공모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김종식 목포시장은 “재정에 여유가 부족한 우리시로서는 정부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공모사업이 특별히 중요하다. 우리 시 발전전략을 공모사업과 연계한다면 사업의 속도와 완성도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강점과 특성을 활용해 비교 우위를 부각하고 선정 가능성을 높일 설득력 있는 논리를 개발하는 등 치밀하고 목적의식적인 전략 수립에 집중해왔다. 이를 위해 부서별 협업회의를 지속적으로 개최하는 한편 용역 이행, 전문가 컨설팅, 프리젠테이션 리허설 등을 통해 완성도를 높여나갔다. 결국 이런 노력들은 지난해 57건의 공모

사업에 선정돼 1,378억원의 국도비를 확보하는 결과로 나타났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수산식품, 관광 등 역점을 두고 육성하고 있는 3대전략산업 분야에서 선정된 공모사업이 두드러진다. 문화예술 분야에서 대규모 사업의 1차 관문을 통과한 것도 눈에 띈다. 시는 대한민국 4대관광거점도시였다. 지난해 1월 치열한 경쟁을 뚫고 목표는 오는 2024년까지 총사업비 1천억원이 투입되는 ‘지역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에 선정됐다. 관광도시로의 도약을 계획해온 목표에 획기적인 발판을 마련한 것이다. 4월에는 오는 2024년까지 450억원이 투입될 ‘전기추진 차도선 및 전원시스템 개발·실증’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시는 이를 토대로 남향에 친환경선박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계획을 수립했다. 이어 12월에는 고하도가 ‘2021년 어촌뉴딜300사업’에 선정됐다. 이에 앞서 달리도와

외달도, 울도가 선정돼 목표는 관내 모든 유인도서에서 어촌뉴딜300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대미는 12월 24일 발표된 예비문화도시 선정이다. 목포는 예향의 역량을 집중해 2022년부터 5년간 2백여명이 투입되는 법정문화도시의 이전 단계인 예비문화도시에 낙점됐다. 이 밖에도 수산식품산업 육성의 촉매가 될 전라남도의 ‘목포어묵 세계화 기반 구축 및 육성 전략, 안전통합센터의 CCTV를 112 및 119 상황실과 실시간 연계해 긴급상황시 즉각적인 대응체계를 갖추는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등에 선정됐다. 김종식 목포시장은 “지난해는 목표 발전의 속도를 앞당길 공모사업에 다수 선정돼 의미가 특별했다. 선정된 공모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해 경제와 문화관광이 꽃피는 대한민국 대표 지방강소도시, 문화관광도시로 변화시켜가겠다”고 강조했다.

김동일기자

삼척시, 경영실습농장 임대운영 열혈 청년농업인 찾는다.

모집인원 2명 이내로 선발, 개소 당 3명 이하로 공동신청 가능

삼척시가 오는 29일까지 스마트 경영실습 임대농장을 운영할 꿈과 도전정신을 갖춘 열혈 청년농업인을 찾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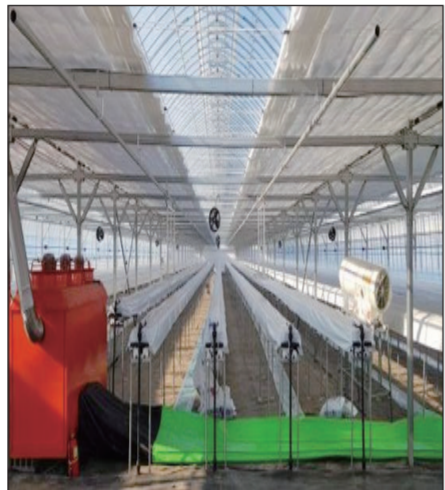
삼척시는 영농기반과 경험이 부족한 청년농업인에게 시설 농업 운영 경험과 기술 등 영농장업을 위한 밑거름 마련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경영 실습임대농장을 조성했다. 경영실습 임대농장은 농림축산식품부 공모 사업에 선정돼 국·도비 포함 6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삼척시 근덕면 농업기술센터 부지내 2개소 3,358㎡ 면적에 스마트 기술을 활용 생육환경 유지관리, 환경정보 모니터링, 자동원격 환경 관리 등이 가능한 온실로 지난 12월에 완공했다.

신청 대상자는 만 18~40세 미만으로 영농경력 3년 이하의 시설농업

경험이 없는 청년농업인으로서 삼척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청년농업인이며 신청이 가능하다. 모집인원은 2명 이내로 선발할 예정이며 개소 당 3명 이하로 공동신청도 가능하다. 임대기간은 3년, 임대농장의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50% 범위 이내에서 책정해 청년농업인의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라고 전했다. 임대농장 신청은 임대신청서 및 영농계획서를 작성해 농업기술센터 농촌 지원과 지원기획부서로 방문 접수하며 신청서는 삼척시청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내려 받으면 된다. 삼척시는 "경영실습농장 임대운영 사업을 통해 영농경험이 부족한 청년농업인에게 영농 창업 전반을 기술지도해 청년농업인이 영농창업 후 실패 가능성을 최소화 하도

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청년농업인의 유입과 안정적인 영농 정착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최만식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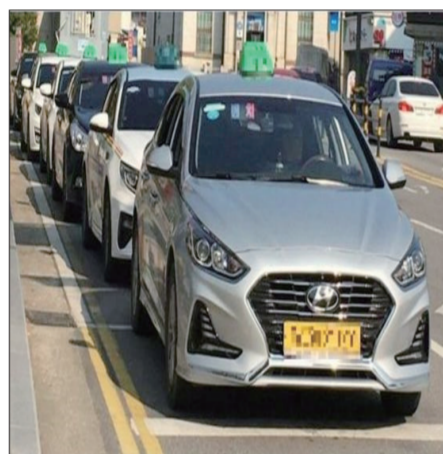


예산군, 올해부터 일반인도 개인택시면허 양수 가능

청·장년층 택시업계 유입 촉진 및 고령자 운행안전 문제 해소 위해

예산군은 2021년부터 사업용 자동차 운전경력 없이도 개인택시면허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개인택시면허 양수를 위해서는 5년 이상의 사업용 자동차 운전경력 및 무사고 경력이 필요하나 관련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사업용 자동차 운전경력이 없는 자가용 운전자도 5년 무사고 경력과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면 개인택시면허 양수가 가능하다. 기존 사업용 자동차 운전경력과 무사고 요건 충족 시 개인



택시면허 양수 기준은 종전과 동일하다.

개인택시면허 양수 기준을 완화한 이유는 청·장년층의 택시업계 유입을 촉진해 고령자 운행안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박영산 건설교통과장은 "앞으로 개인택시면허 양수 기준 완화에 따라 젊은 택시운수종사자가 택시업계에 유입되면 예산군 택시산업의 인력구조가 효율적으로 바뀌게 돼 서비스의 품질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고정화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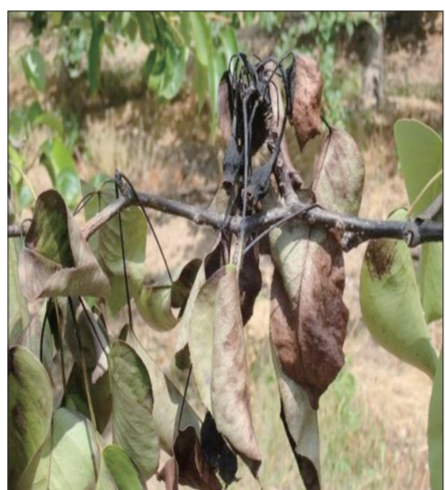
진천군, 월동기 과수화상병 예방 철저 당부

진천군 농업기술센터는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해 겨울철 과원관리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15일 군에 따르면 과수화상병은 세균성 병으로 주로 개화기 때 곤충에 의해 옮겨지며 병이 발생한 나무는 잎이 시들어 검게 변해 마치 불에 탄 것처럼 보인다.

해당 병은 치료방법이 없어 병에 걸리게 되면 병든 나무는 제거해야 확산을 막을 수 있다. 농가에서는 과수원을 청결하게 관리해야 하며 과수원 출입용 신발과 작업복은 외부 활동용과는 구별해 사

용해야 한다.

또한 주변 과수원 방문을 자제하고 전정가위는 공으로 사용하면 안 되며 농작업 도구는 수시로 소독해야 한다. 화상병과 관련한 의심신고나 문의사항은 기술보급과로 연락하면 된다. 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지난해 진천군에 과수화상병이 최초로 발생해 다수 농가가 어려움을 겪었다"며 "군 차원에서 사전 방제활동 뿐만 아니라 지역 농업인들의 철저한 예방활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만식기자

천안시 독서온도탑, 새로운 100℃를 향해

지난해 97도로 아쉬운 마무리. 독서 의욕 고취를 위해 올해도 운영

천안시중앙도서관이 지난해 개관 30주년을 맞아 터미널사거리에 설치한 독서온도탑 온도가 97도를 기록했다. 천안시민들의 독서량을 측정해 온도로 나타낸 '독서온도탑'은 매일 천안시에 위치한 모든 도서관의 대출권수를 합산해 온도로 표시했다.

아쉽게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몇 개월간 도서관 휴관이 이어져 당초 목표치인 100도에는 조금 못 미쳤으나, 휴관 중 독서활성화를 위해 실시한 도서대출 예약서비스, 드라이브스루 대출 등 다양한 서비스로 뜨거운 독서 온도를 유지할 수 있었다. 중앙도서관은 시민들의 독서 의욕 고취를 위해 1년 더 독서온도탑을 운영하기로 했다. 2020년 12월 말 대출량을 기준으로 2019년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지만 시민들의 독서 온도는 지금도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중앙도서관 관계자는 "코로나 19에도 독서온도탑이 이만큼 뜨거울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시민들의 독서 열의 덕분"이라며 "천안시청 및 천안시도서관 홈페이지의 팝업창을 통해 현재 온도를 확인할 수 있으니 올해도 많은 시민들의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원호기자



양양군, 설맞이 양양군 온라인쇼핑몰 특별 할인 홍보행사 가져

20개업체 30여종, 10% 할인 및 50,000원 미만 무료배송

양양군이 설 명절을 맞이해 명절 선물 및 양양군 농특산품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생산자와 소비자간 직거래 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할인행사는 지역 농·특산물의 안정적인 유통과 코로나 등 어려운 시기에 양양군 농업인 및 업체들을 돕고자 마련한 특별 할인행사로 행사기간은 1월15일부터 2월3일까지이다. 주문은 양양군 직거래쇼핑몰인 양양몰을 통한 온라인 주문으로 진행되며 20개 업체 35여종에 대해 10% 할인 및 50,000원 미만 무료배송의 혜택이 있다. 대상품목은 표고버섯, 새싹인삼, 버섯너비아니 세트, 장류, 장아찌, 잡곡류, 전통주 등이다. 또한, 단체 및 모임회 등에서 대량 주문 시 양양몰에서 주문자 리스트를 받은 후 주문 대행도 가능하다.

군은 양양몰 홈페이지 할인행사 팝업창 게시, 양양몰 가입회원 및 구매고객 대상 홍보문자 발송과 관내 기업체, 양양재경군민회 등에 군수님 서한문 발송, 서울행정시스템 공시 등을 통한 홍보로 양양 농업인들이 보람을 찾을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영근기자



청양군, 농어촌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 신청

청양군이 2021년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을 공모하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최종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농어촌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취약지역 주민들의 기본적인 생활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생활 인프라 확충과 주거 환경개선, 주민 역량강화, 휴먼 케어 활동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군은 이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 지난해 6월부터 목면 화양1리를 대상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주민들과 함께 세부적 사업계획을 마련했다.

그 결과 지난달 충남도 사전평가

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으며 이후 전문가 자문 내용을 반영하고 신청서를 보완했다. 다음 달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평가에서 최종 사업대상지로 선정될 경우 군은 4년간 국비 15억원 등 22억원을 투입해 노후주택 정비 기반시설 정비 마을 환경개선 주민 역량강화에 나서게 된다. 김선식 농촌공동체과장은 "한국의 경제력을 감안할 때 우리 농촌도 세계 어느 나라에 못지않은 생활환경을 갖춰야 한다"며 "사업추진 필요성을 적극 강조해 최종 사업대상지로 선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고정화기자



예산군보건소, 치매가족 '마음 잇기' 비대면 힐링 프로그램 운영

돌봄 스트레스 완화 및 소통 창구 마련 위해

예산군보건소는 치매가족의 돌봄 스트레스 완화 및 가족 간 소통의 창구를 마련하기 위해 '마음 잇기' 비대면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및 외부활동이 자유롭지 못한 치매가족에게 다양한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코로나19로 인한 대면모임 축소의 아쉬움을 달래고자 기획됐으며 치매안심센터에서 자체 제작한 동영상 제공을 통해 월 1회,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보건소는 치매안심센터 자조모임에 등록된 가족에게 가정에서 손쉽게 따라할 수 있는 힐링 키트를 비대면 배송하고 완성된 작품

은 단체 대화방을 통해 공유할 예정이다. 힐링 프로그램으로는 석고방향제 만들기 정서안정에 도움이 되는 도서 제공 원예치료 코바늘뜨기 등 대상자 수에 맞춘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기획돼 있으며 단체대화방을 통해 다양한 정보 및 정서교류를 통해 치매가족 간 지친 마음을 이어주고 서로에게 힘이 되는 친구를 만드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치매안심센터 관계자는 "비대면 힐링프로그램을 통해 일상에 지친 치매가족에게 높은 만족감을 드리고 스트레스 해소의 시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재은기자



영동군, 2021년 임산물소득 지원사업 수요조사 실시

충북 영동군은 임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기반구축과 농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임산물소득 지원사업 수요조사를 1월 31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군은 꽃감, 감, 호두, 표고 등 임산물 생산능력을 대상으로 감박피기, 건조기 등 가공장비와 유기질비료, 표고자목·배지, 꽃감박스, 관수·저장·건조시설 등 임산물 생산·유통 품목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사업수요조사는 각 읍·면사무소에서 임업인, 마을대표 등에 홍보와 안내를 실시해, 조사와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이후 수요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임산물재배면적, 기 보조사업 수혜횟수, 임산물 재해보험가입 등의 요건의 면밀히 검토해, 최종 사업대상자를 선정 후 보조사업을 실시하게 된다. 영동의 대표 임산물



인 꽃감·감산업 발전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임산물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생산·가공·유통으로 농가의 소득안정과 대외경쟁

력을 강화하고 시설장비의 현대화로 지역농특산물의 품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내실있는 수요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최만식기자

홍성군, 시클증후군 정대성 군父 마스크 1만장 기탁

희귀성 질환 앓는 아들에게 전달된 온정.사회에 다시 보답하고자

홍성군은 연이은 한파와 코로나19로 지역사회가 얼어붙은 가운데 따뜻한 나눔의 온정이 이어지며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다.한파의 추위도 녹인 미담의 주인공인 희귀성 질환 시클 증후군을 앓고 있는 정대성 군의 아버지 정희원 씨는 지난 14일 홍성군청을 방문해 덴탈 마스크 1만장을 기부했다.아버지 정 씨는 대성 군이 척추변형으로 6개월마다 수술을 받아야 하지만 학교생활도 열심히 하며 화가의 꿈도 키워나가고 있다며 아들이 몸은 불편하지만 밝게 자랄 수 있었던 것은 많은 이들이 도움을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동안 받아온 고마움을 사회에 보답하고자 마스크 1만장을 기부하게 됐다고 전했다.군은 기부 받은 마스크를 홍성군장애인 복지관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전달해 코로나19로 고통 받고 있는 소외된 우리 이웃에게 전달할 예정이다.4년 전 시클 증후군을 앓고 있는 대성 군이 자신보다 큰 동생에게 장난감을 양보하고 넉넉하지 않은 형편으로 지



료를 걱정하는 부모를 위로하는 속 깊은 행동이 언론에 소개되면서 많은 사람들의 도움의 손길이 이어졌다. 정 씨의 아들 대성 군이 앓고 있는 시클 증후군은 매우 희귀한 유전 질환으로 태어나기 전 산모의 배속에서부터 성장이 지연되고 태어난 후에도 성장 지연이 지속되어 왜소

증을 갖게 되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다. 김석환 홍성군수는 "소중한 나눔을 몸소 실천한 정희원 씨에게 감사드리며 감동의 기부와 선행은 우리 모두에게 큰 힘이 될 것이고 평소 마스크 구입이 어려운 소외계층에 소중하게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고정화/기자

어려운 시기에 나눔으로써 행복과 보람은 두 배가 된다.

임명률 한려물산 회장·이흥기 상품물산 회장 불우이웃돕기 성금 기탁

임명률 한려물산·멀치원 회장과 이흥기 상품물산 회장이 신축년 새해를 맞아 지역의 취약 및 소외계층을 돕기 위한 성금기탁의 뜻을 모았다.두 사람은 통영의 토박이로 자수성가해 지역 내 작은 수산물업체를 중견사업체까지로 일군 기업인이다. 평소 두 사람은 형제처럼 친분이 두터운 관계로 새해 덕담을 나누며 저녁식사를 하던 중 이 같은 결심을 하게 됐다.작년 한해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어려웠던 시기를 겪었지만 2021년은 이를 극복하고 희망찬 새해가 시작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각 500만원씩, 총 1,000만원의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통영시에 기탁했다.임명률 한려물산 회장은 현재 직장·공장 새마을운동통영시협의회장을 겸하고 있으며 "지역기업이 성장하고 유지될 수 있는 이유는 지역민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며 지역기업의 이윤을 여러



운 이웃과 나누는 것이 바로 기업인으로서의 소명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함께 마음을 모아준 이흥기 상품물산 회장에게도 감사드린다"고 전했다.강석주 통영시장은 "너나할 것 없이 힘든

시국에 더욱 추웠을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따뜻한 마음을 전달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기탁된 성금은 취약계층을 위해 소중히 쓰겠다"고 덧붙였다. 남궁영기/기자

한샘, 하동지역 수해 소상공인에 물품 지원

하동군, 식기살균기 등 4종 생활용품 및 방역 서비스...수해 소상공인에 전달

하동군은 종합 홈 인테리어 전문기업 한샘이 지난해 8월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은 하동지역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생활용품과 함께 방역 지원에 나섰다.한샘은 이번 지원을 통해 수해 특별재난지역 피해 주민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농산물 판로 및 먹거리 지원, 물품 지원과 방역 서

비스 등을 제공한다.군은 기탁자의 뜻에 따라 14일 수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물품을 전달했다. 한샘에서 사회공헌 활동을 총괄하는 오상우 이사는 "연중 이어지는 코로나19에 여름철 수해까지 이중고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과 함께 어려움을 이겨내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지원했다"고 말했다. 윤상기 군수는 "어려운 시기에 하동지역 소상공인에 도움을 준 한샘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앞으로

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한편 한샘은 상생 및 지속가능한 가치 창출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앞서 지난해 9월에는 대·중소기업 농어업협력재단과 협약을 맺고 농어촌상생협력기금 5억원을 출연해 수해 및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농어촌 지역에 대한 복구 지원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남궁영기/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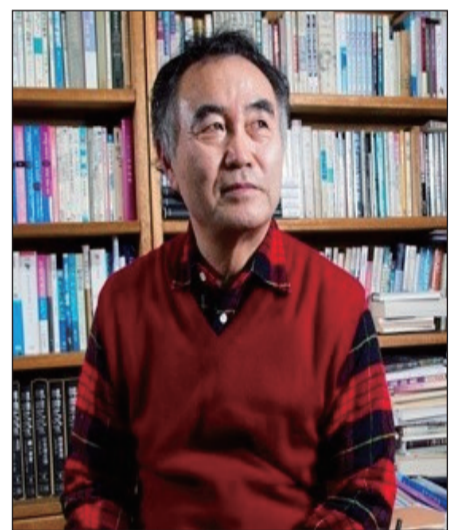


남해군 향토 장학금, 장학금 기탁

백시종 작가 100만원, 창선면 보천마을 임정수 20만원 기탁

남해군향토장학회는 백시종 작가 100만원, 창선면 보천마을 임정수 20만원의 향토장학금을 각각 기탁했다고 밝혔다.지난 14일 백시종 작가는 군수실을 찾아 "고향 후배들의 미래 꿈을 위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싶다"며 100만원의 장학금을 건네 왔다. 백시종 작가는 1944년 4월 9일 남해군 남면 평산리 출생으로 1967년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비둘기'로 등단해, 1975년 제1회 한국소설문학상, 2001년 제38회 한국문학상, 2002년 제10회 오영수문학상, 2004년 제2회 채만식문학상 등을 수상하였다.

백시종 작가의 주요 작품집으로 '여수의 눈물' '누란의 미녀' '뽕' '돈황제' '망망대회' '수목원 가는길' 등이 있다.백시종 소설가는 작년 제23회 김동리문학상에서 장편소설 '누란의 미녀'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지난15일 창선면 보천마을에 거주하는 임정수씨가 향토장학회 기탁 계좌로 20만원의 소중한 금액을 보내 왔다.임정수 씨는 "연초를 맞이해, 뜻깊은 일을 하고 싶어 작은 금액이지만 지역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서 장학금을 기탁하게 됐다"고 밝혔다. 남궁영기/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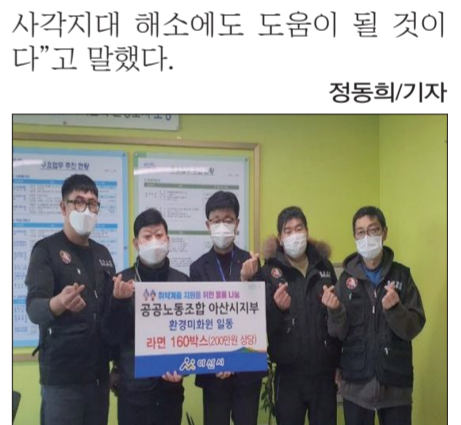


봉담2지구 중흥S-클래스 3차

공공노동조합 아산시지부 환경미화원, 아산시에 라면 160박스 후원

공공노동조합 아산시지부 아산직영미화원지회가 14일 아산시를 방문해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200만원 상당 라면 160박스를 후원했다.이날 준비된 물품은 청소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는 미화원 55명과 자원봉사센터 직원 7명이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사랑의 모금활동을 추진해 마련한 후원물품으로 관내 취약계층 및 사회복지시설 등으로 전달할 예정이다.정광해 지회장은 "지난 수해와 대설 등으로 직원

들이 폐기물 수거 등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쾌적한 아산을 만들기 위해 모두가 힘심해 주야간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새해를 맞이해 외롭고 소외된 이웃을 돕고자하는 작은 마음을 전달할 수 있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이종택 복지문화국장은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깨끗한 아산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주시는 미화원분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지속적인 관심과 실천은 기부문화 확산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정동희/기자

추운 겨울, 집에서 방콕 인형극 즐겨요

부천시 상동도서관, 온라인 인형극 '토끼의 재판' 운영

부천시 상동도서관은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을 위해 온 가족이 집에서 편안하게 함께 볼 수 있는 온라인 인형극을 방영한다. 이번에 방영할 공연은 인형극과 뮤지컬을 혼합한 복합극 '토끼의 재판'이다.

위험에 처한 자신을 구해준 착한 돌쇠를 되려 잡아먹으려는 배은망덕한 호랑이를 보고 지나가던 토끼가 재판을 벌이는 과정을 그렸다.

바깥 날들이가 어려운 요즘 따뜻한 집안에서 자녀와 함께 온 가족이 둘러앉아 하하호호 즐길 수 있는 공연으로 주말을 풍요롭게 만들어 줄 것으로 기대된다. 토끼의 재판은 2월 7일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부천시립도서관 유튜브 채널

'책, 봄'에서 실시간으로 생중계한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1월 14일 오전 10시부터 부천시립도서관 홈페이지 문화프로그램 게시판에서 신청하면 된다. 부천시립도서관은 상동도서관을 시작으로 올 한해 시민 취향에 맞는 다양한 공연을 기획해 시민들의 온택트 문화생활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부천시립도서관 유튜브 채널을 통해 매월 샌드아트, 매직쇼, 인형극 등 풍성한 볼거리가 제공된다. 자세한 사항은 부천시립도서관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상동도서관 독서진흥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이동원기자



대전시립연정국악단, 신년음악회 벽사진경'개최

나쁜 기운은 쫓고 좋은 기운을 맞이하는 새해 첫 무대

대전시립연정국악단은 오는 1월 21일 목요일 저녁 풍류마당'신년음악회 벽사진경'을 국악원 큰마당 무대에 올린다. 신축년 새해 첫 공연은 사귀를 쫓고 경사로운 일을 맞이하는 뜻이 담긴 '벽사진경'으로 우리 전통음악 본연의 음색과 멋에 집중한 무대를 선보인다.

이번 무대는 악기와 여병 등 수많은 어려움을 지혜롭게 극복해 온 조상들의 지혜를 되새기며 지난해부터 우리를 지치고 힘들게 하는 코로나19의 나쁜 기운을 쫓아버리고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 공연의 시작은 대전시립연정국악단 예술감독 겸 지휘자로 취임한 노부영 예술감독의 집박으로 막이 오른다. 1부는 생명이 하늘처럼 영원하기를 기원하는 관악합주 '수제전'을 시작으로 생활의 부드러운 음색과 단소의 맑고 고운 음색이 어우러지는 생소병주 '수룡음', 악귀를 쫓아내고 평온을 기원하는 궁중무용 '처용무', 태평성대를 기원하는 가곡 '태평가'를 선보인다. 2부에서는 나라의 평안과 번영을 기원하는 민속무용 '태평무', 풍류의 멋스러움과 아름다움을 표현한 민요 '널뛰기, 신사철가, 한강수타령, 매화타령', 만사형통을 축원하는 연희 '비나리, 액막이타령, 선반 판굿'까지 멋스럽고 흥겨운 무대를 선사한다. 국악원 관계자는 "새해 국악단 첫 공연 '신년음악회 벽사진경'으로 시민들께 좋은 일들만 가득한 2021년이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국악원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수칙을 준수해 공연장 객석을 30%로 제한해서 운영한다.

고정화기자



슬기로운 집콕생활 3, "문화백신 접종받자"

통기타, 3D 펜, 보드게임, 뉴스포츠, 칼림바, 컬러비즈 대어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따라 청소년들의 외출 자제와 관련 기관의 휴관 등으로 인해 청소년 문화 프로그램 체험의 기회가 줄어들고 있다. 이에 당진청소년문화의집은 지난해 12월까지 진행하였던 '슬기로운 집콕생활2'에 이어 '슬기로운 집콕생활3'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보드게임 16종, 3D펜 20대, 뉴스포츠 12종, 통기타 20대, 칼림바 20대, 컬러비즈 20개 등 청소년이 집에서 쉽게 문화체험을 즐기며 여가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물품을 대어할 예정이다. 물품의 대어 및 반납은 당진시에 거주하는 9세부터 24세까지의 청소년이면 누구나 이용 가능하며 이번 달 16일을 시작으로 매주 토요일마다 올해 12월 26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신청 방법은 청소년 또는 보호자가 방문해 신청서 작성 후 대어가 가능하고 카카오톡 '당진청소년문화의집' 채널에서 사전 신청 예약이 가능하다.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반납된 자재는 철저한 방역 및 소독에 힘을 기울여 진행될 예정이다. 당진청소년문화의집은 청소년들

슬기로운 집콕생활3

문화백신 접종받자!

프로그램 안내 및 신청방법

1. 참여 대상 : 당진시 거주 9~24세 청소년
2. 대어 및 반납 : 2021. 01. 16 ~ 2021. 12. 18
매주 토요일 10:00 ~ 18:00 까지(대여기간 7일)
3. 신청 방법 : 당진청소년문화의집 방문 후 신청서 작성
※ 카카오톡 '당진청소년문화의집' 채널에서 사전 예약 가능
4. 대어 물품 : 3D펜, 뉴스포츠, 칼림바, 보드게임, 통기타, 컬러비즈
※ (한 종류당 1개 / 1인당 최대 2개까지 가능)
5. 문의 : 041-360-6960-2, 카카오톡 '당진청소년문화의집' 채널
6. 주의사항
※12:00 ~ 13:00는 점심시간으로 대어 및 반납, 문의 불가.
※코로나-19 관련 상황 등 기관 운영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당진청소년문화의집

이 각종 문화 콘텐츠를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지원하고자 향후 청소년 요구 반영에 따라 지원 콘텐츠를 늘릴 예정이다. 또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청소년 수련시설 또한 변화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향후 온라인 시스템까지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김원호기자

경남도립극단 비상임단원 공개모집

상근직원단원, 일반직원단원 모집

경남도립극단이 2021년 열정적인 마음으로 무대를 채워나갈 배우를 공개모집한다. 모집부부는 상근직원단원과 일반직원단원으로 중복지원도 가능하다. 응시자격으로 상근직원단원은 프로무대 경력 5년 이상, 최소 5작품 이상 출연 경력자에 한하며 일반직원단원은 프로무대 경력 3년 이상, 최소 4작품 이상 출연 경력자면 지원 가능하다. 선발된 상근직원단원은 2월부터 12월까지 도립극단의 정기공연, 순회공연 등 다양한 작품에 참여하게 되며 일반직원단원은 10월에 개막하는 연극 '토지 II'에 한해 정기공연 및 순회공연 기간 동안 참여하게 된다. 특히 전국 최초로 예술단 소속을 운영하는 도립극단은 안정적인 예술 활동을 위해 전주 외 타 지역 단원에게 도립극단 소속 제공 또는 별도의 체류 수당을 지원할 예정이다. 원서 접수는 1월 21일~27일 오후 6시까지 경남문화예술회관 6층 도립예술단 사무실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가능하다.

최광용기자

경남도립극단 배우 오디션

상근단원 & 연극 '토지 II' 출연배우

2021년 경남도립극단의 정기공연에 함께 할 상근단원과 연극 '토지 II'에 함께 할 일반단원을 모집한다. 열정 가득한 배우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접수기간	2021. 1. 21 (목) - 1. 27 (수)까지	
응시자격	상근직원단원 : 프로무대 5년 이상(연극 1작품 이상, 순회공연 1작품 이상) 출연 경력 5년 이상 일반직원단원 : 프로무대 3년 이상(연극 4작품 이상, 순회공연 1작품 이상) 출연 경력 3년 이상	
접수방법	원서 접수 : 원서, 자기소개서, 경력서, 사진 2장, 신분증 사본 1장, 인력수요서 1장, 인력수요서 1장, 인력수요서 1장, 인력수요서 1장	
모집분야	연극배우	연극배우
채용기간	상근직원단원 : 2021. 2. 24 ~ 12월 (10개월) 일반직원단원 : 2021. 2. 12 ~ 10. 11 (9개월) 및 순회공연 기간	
채용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서(주소, 연락처, 자기소개서) ○ 경력서(최종 직장명, 경력서) ○ 경력서(최종 직장명, 경력서) ○ 경력서(최종 직장명, 경력서) ○ 경력서(최종 직장명, 경력서) ○ 경력서(최종 직장명, 경력서) ○ 경력서(최종 직장명, 경력서) 	
전형안내	1차 합격자 발표	2차 합격 및 면접
	3차 합격	4차 합격

경남도립극단

청소년상담의 모든 것, 토픽코리아 청소년상담사3급·2급 온라인교육 개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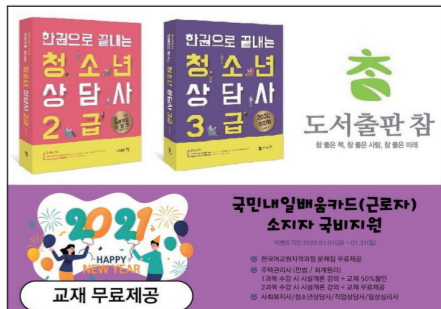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받아 국비지원교육이 가능

한국토픽교육센터 토픽코리아 국민내일배움카드에서는 청소년상담사3급, 2급 국가전문자격 시험 대비 과정을 직장인 국비지원교육으로 1월 15일 개강하며 온라인교육으로 진행한다. 이 과정은 NCS기반 고용노동부 직업훈련 HRD-Net의 근로자 훈련 과정에 등록되어 있는 과정이며 지원이 가능한 근로자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온라인학습이 가능하다. 최근 청소년상담사의 역할이 부각되고 있다. 정부가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학교폭력 전문상담 교사 및 상담사 등이 확대 배치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청소년 상담활동의 구심점을 마련하여 보다 효과적인 청소년 상담활동을 전개할 수 있고 효과적인 체계화 및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제도가 구축되고 있어 앞으로 청소년상담사의 인력수요는 점점 늘어날 전망이다. 청소년상담사 2급과 3급은 국가전문자격증으로 심리학에 관련된 유일한 자격증으로 심리학 분야에서도 인정을 받는 국가자격증이다. 학교폭력이나 왕따와 같은 문제들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면서 수요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해당 자

격을 취득할 경우 청소년에 진로 고민, 심리문제, 교육이나 훈련 등 여러 가지 역할을 하며 수련원, We 클래스, 초중고 학교, 상담기관 등 청소년상담과 관련된 어디든 취업이 가능하다. 청소년상담사 3급의 경우 관련 학부의 전공·부전공 졸업장이 있어야 하며 성적증명서 확인사항에 상담 관련 과목 15명여 중 4과목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청소년상담사 2급의 경우에는 '상담분야에 석사학위, 상담분야 학사학위와 3년 경력, 3급 자격증 취득 후 경력 2년' 세가지 방법중 하나를 충족한다면 응시자격을 갖출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상담 관련 분야라 함은 교육학, 심리학, 아동복지학, 사회사업(복지학), 정신의학, 청소년(지도)학 등을 말한다. 청소년상담사 2급·3급 국가자격증은 응시자격이 상이하여 확인을 잘 해야 한다. 토픽코리아에서는 2021년 1월에 개강하는 기수에 한해서 도서출판 참'한권으로 끝내는 청소년상담사3급·2급'수험서를 무료로 지원한다. 청소년상담사 2급의 주요 역할은 청소년 정신을 육성하는 청소년 상담사로서 청소년상담의 전반적 업무수행, 청소년의 각 문제영역에 대한 전문적 개입, 심리검사 해석 및 활용, 청소년상담과 관련된 독자적 연구 설계 및 수행, 3급 청소년상담사 교육 및 훈련 등이다. 청소년

상담사 2급 국가자격증 시험은 총 6개의 과목으로 이루어져 있다. 필수 과목으로 청소년 상담의 이론과 실제, 상담연구방법론의 기초, 심리측정 평가의 활용, 이상심리 총 4가지의 과목이 있으며 선택과목으로 진로상담, 집단상담, 가족상담, 학업상담이 있는데 2가지의 과목을 선택하면 된다. 한국토픽교육센터 토픽코리아는 서울시상공회소 동작구상공회, 한국에듀테크산업협회 임원사이고 사단법인 한국이러닝협회, 한국 HRD기업협회, 한국디지털컨텐츠협회, 한국고용협회 회원사이다. 서울시교육청 산하 동작관악교육지원청 원격평생교육시설인가를 필한 교육전문직업으로 한국인력공단(큐넷) 국가자격증 양성과정을 비대면 온라인교육을 통해 국비 지원한다. 자세한 안내와 수강방법은 토픽코리아 인재개발교육원 홈페이지 및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고정화기자



부천시, 미니멀 경제학 저자 한진수 교수 특강 개최

1월 19일부터 부천시립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접수

부천시립꿈빛도서관에서는 겨울방학을 맞아 경제학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진수 교수의 '미니멀 경제학' 저자 특강을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강의를 맡은 한진수 경인교육대학교 교수는 한국금융교육학회 부회장, 금융위원회 금융교육협의회의원 등 활발하게 활동하는 경제교육 전문가다.

저서로 '미니멀 경제학 1,2,3', '돈의 선택', '청소년을 위한 경제학 에세이' 등이 있다.

청소년 인문학 프로그램인 이번 강의는 어렵게 느껴지는 경제학을 일상생활 속 경제원리 중심으로 알아보면 쉽게 경제학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의 대상은 청소년과 성인이다. 특강에 참여할 회원은 1월 19일 오전 10시부터 부천시립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강연은 2월 20일과 27일 오전 10시 30분부터 네이버밴드를 통해 진행한다.

이동원기자

네이버밴드 LIVE

미니멀 경제학

경제적 미성년들의 최소한의 경제수업

2021. 2. 20 - 2021. 2. 27 매주(토) 10:30 ~ 12:30 총 2회

강사 | 한진수 교수

현)경인교육대학교 사회교육과 교수
한국금융교육학회 부회장
금융위원회 금융교육협의회의원

대상 | 청소년 및 성인
강의 | 네이버 LIVE 방송(온라인)

접수기간 | 2021. 1. 19(화) 오전10시~
접수방법 | 부천시립도서관 홈페이지 접수
네이버밴드 가입 문자 발송
홈페이지 접수하신 분들을 위하여 문자 발송

☎ 032-625-4629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동네마트 입점

사회적경제기업은 매출을 늘리고 판로를 확대하는 한편 지역마트는 이윤 창출

전주시가 사회적경제기업에서 생산된 제품을 지역마트에 입점시켜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돕기로 했다. 시와 전주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사회적경제기업 9곳의 제품을 유명마트와 김마트 등 지역마트 13곳에 입점시킬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이는 시민들에게 사회적경제의 의미를 널리 알리면서 지역마트에는 새로운 제품을 활용한 이윤 창출을 돕는 동시에 사회적경제기업에는 매출 신장과 판로 확대를 꾀하는 데 목적이 있다. 입점 예정 사회적경제기업은 전주농부협동조합 제이피셀 전주지역자활센터 한입푸드 전주지역자활센터 한뫼 두메산골영농조합법인 온고음팜협동조합 전주또바기협동조합 농업회사법인 우리들낙시품역셀 등이다. 누룽지, 부각류, 떡갈비 등 식품류와 마스크, 가방 등의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이다.

시는 지역 마트에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이 적극 홍보될 수 있도록 전용 진열장을 제작해 지원하고 현수막과 홍보물도 제공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시와 전주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지난 13일 사회적경제기업 대표자 등 9개 기업 관계자와 함께 지역마트 입점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난해 9월에는 덕진동 하가지구 파인마켓과 중화산동 햇빛찬마트에 요거트와 과자, 부각, 건조산채와 곤드레 비빔밥 등 3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입점시켰다. 전주시 사회연대지원단 관계자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지역마트에 입점 시킴으로써 안정적인 판매망을 구축하고 소비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켜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기업을 지원하는데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일기자



문화누리카드 10만원 ‘자동 재충전’

전주시, 올해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으로 지난해보다 1만원 인상된 10만원 지급

올해부터 문화누리카드는 지원금이 1만원 늘어나고 충전도 편리해진다. 전주시는 올해 통합문화이용권 지원금으로 1인당 연간 10만원을 지급하고 발급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 ‘자동 재충전 제도’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문화누리카드는 경제적 여건 등으로 문화생활이 어려운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공연, 영화, 도서 등 문화 활동을 위해 제공되는 카드다. 지난해까지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은 9만원이었으나 올해는 1만원이 늘어난 10만원이 지원된다. 시는 또 올해부터 기존 이용자가 수급자격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 오는 20일부터 22일 사이에 지원금을 자동으로 충전해줄기로 했다. 매년 신청을 통해 충전해야 했던 이용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다만 보유하고 있는 카드 유효기간이 2021년 이전인 자거나 지난해 지원금을 전혀 미사용한 자는 자동으로 재충전되

지 않는다. 이들은 다음 달 1일부터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문화누리 홈페이지, 전화를 통해 카드를 새로 발급받거나 재충전해야 한다. 이용자는 발급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 문화활동과 관련된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올해 안에 사용하지 않으면 카드 잔액은 자동으로 소멸된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해 문화누리카드 발급자 2만8300명에게 25억 4700만원을 지원했다. 지원예산 대비 이용률은 95.57%를 기록했다. 서배원 전주시 문화정책과장은 “문화 소외계층이 다양한 문화 활동을 누릴 수 있도록 문화누리카드 발급과 이용 안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올해에는 특히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시민들을 위한 찾아가는 문화서비스와 온라인 이용 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승일기자

2021년 1~2월 중 재정증권 8.0조원 발행

예년보다 이른 1월 셋째 주부터 발행해 코로나 피해지원 등 시급한 재정지출 뒷받침

기획재정부는 원활한 재정집행을 지원하기 위해 1월 중 2.0조원, 2월 중 6.0조원 규모의 재정증권을 5회에 걸쳐 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재정증권이란, 세입-세출 간 시기적 불일치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발생한 국고 부족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금융시장에서 발행하는 유가증권을 의미한다. 금번 재정증권 발행은 통안증권 입찰기관, 국고채 전문딜러 및 예비 국고채 전문딜러, 국고금 운용기관을 대상으로 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된다. 1~2월 재정증권

발행을 통해 마련한 재원은 코로나 피해지원 등 주요 사업 집행재원으로 활용될 계획이며 2월말 재정증권 발행 잔액은 8.0조원이 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앞으로 면밀한 국고금 수입·지출 관리를 통해 불필요한 유류자금은 최소화하는 한편 국고금출납 과정에서 단기적 부족자금이 발생할 경우 재정증권 발행 등 일시차입을 통해 조달해 주요사업 집행을 적기에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성욱기자

산청군 중기육성 용자 이차보전금 도내 최대 지원

상반기 자금 70억원 규모 지원...19일부터 신청

산청군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을 위해 70억원 규모의 상반기 중기육성자금을 지원한다. 특히 용자금에 대한 이차 중 3.5%를 지원, 중소기업인들의 이차 부담을 덜어준다. 이는 도내 지자체 가운데 최대 수준이다. 실제 기업이 부담하는 금리는 0~1% 내외 수준이며 산청군은 5년간 이차보전금을 지원한다. 산청군은 오는 19일부터 계획금액 소진 시까지 산청군과 협약을 체결한 4개 금융기관에서 중기육성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15일 밝혔다. 용자금 대출 한도액은 제조업 최대 3억원, 기타업종 최대 5000만원이며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조건이다. 지원대상은 산청군에 주된 사업장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다. 특히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행정기관으로부터 폐쇄명

령을 받은 업체는 우선 지원된다. 농협은행산청군지부, 경남은행산청지점, 산청새마을금고 기업은행전주지점에서 신청할 수 있다. 구비서류와 자격요건 등 자세한 내용은 산청군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중기육성자금 지원은 기업이 금융기관에 신청하면 금융기관이 대출심사 평가 후 산청군에 추천하게 된다. 이후 산청군은 자격요건을 최종 심의, 지원대상을 결정한다. 문의는 산청군청 경제전략과 지역경제담당, 또는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환경이 어느 때 보다 어려운 시기”며 “신속한 용자지원으로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남광영기자



완주군 사회적경제 속도낸다 공모사업 설명회 ‘눈길’

비대면 통합설명회 열어... 다음달부터 사업 신청 가능

사회적경제 진화도시 완주군이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15일 완주군은 군에서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는 사회적경제 사업을 한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 공모사업 통합설명회’를 열었다. 완주소설근즈센터 유튜브 공식채널을 통해 비대면으로 추진된 설명회에는 200여명이 참여해 사회적경제에 대한 높아진 관심을 확인했다. 설명회는 완주군 사회적경제과 내 다양한 세부사업간 연계성을 높이고 공동체들의 소통과 협력을 이끌어냄과 동시에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올해 추진하는 사회적경제과 공모사업은 소셜굿즈팀 소셜굿즈 육성사업, 지역창업공동체 육성사업, 공유단체·기업 육성지원사업 도시공공체 마을공동체팀 파워빌리지 사업, 생생마을 기초단계, 마을로 청년 인큐베이팅 청년정책팀 청년창업공동체 육성사업이다. 각 부서 팀장들은 각 사업들을 전체적으로 소개하고 질의응답을 받으며 참여자들과 활발하게 교류했다. 현재 완주군은 ‘소셜굿즈 2025플랜’을 통해 교육, 복지, 문화, 관광, 에너지 등 군민 삶의 다양한 영역까지 사회적경제 방식을 통해 지역사회문제 해결, 공동체 회복에 앞장서왔으며 사회적경제조직 발

김광수기자



광주시, 서하리 로컬푸드 농산물 네이버 온라인 쇼핑 오픈

광주시가 서하리 로컬푸드 농산물을 인터넷으로 주문할 수 있는 네이버 온라인 쇼핑을 오픈한다. 시는 15일 시청 다목적광장에서 ‘네이버 온라인 쇼핑’ 오픈식을 개최했다. 이날 오픈식에는 신동헌 시장을 비롯해 임일혁 시의회 의장, 농협 및 축협 관계자, 농가 대표 등이 참석했으며 참석자들은 직접 온라인으로 농산물을 주문해 보는 오픈 시연회를 진행했다. 이번 네이버 온라인 쇼핑 구축은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판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기존 광주축협이 구축한 ‘광주축협 한우대가’ 홈페이지에 서하리 로컬푸드 농산물 직관장

에서 판매하는 농산물을 주문할 수 있는 ‘자연채 행복박스’ 카테고리 생성했다. 또한, ‘광주축협 한우대가’ 육류를 주문하면 삼채, 버섯, 새순 드레싱 양념 등을 하나의 세트 로 구성해 원클릭으로 주문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했다. 신동헌 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답답하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자연채 행복박스’로 시민 모두가 가족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며 “이번 온라인 쇼핑 오픈으로 어려운 농가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성욱기자



의정부 고산 수자인 디에스티지

이수근→밥굽남, 그들은 왜 대자연 속 '빠꾸기 산장'으로 갔나?

#엔택트시대_셀프고립 '시청자 대리만족' 방송 선언

이수근, 박세리, 양세찬, 이진호, 이해성, 밥굽남은 왜 모든 것이 단절된 '빠꾸기 산장'에 자발적으로 고립됐을까.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자발적 고립' 상태에 빠진 지금 '와일드 와일드 퀴즈'가 '엔택트 시대 셀프고립'이라는 첫 키워드를 공개하며 프로그램의 기획의도를 밝혀 기대를 모은다. 오는 2월 2일 화요일 밤 11시 첫 방송되는 '와일드 와일드 퀴즈' 측은 15일 프로그램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첫 키워드로 현 시대를 관통하는 키워드이기도 한 '엔택트 시대 셀프고립'을 꼽았다. 지난해부터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 말 그대로 '엔택트 시대'에 접어들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접촉을 줄여야만 했고 집에서 '자발적 고립'을 이어가는 등 일상상의 큰 변화를 맞이했다.



간혀 '셀프 고립'을 선택한 멤버들은 예능 프로그램의 주요 웃음 포인트가 되는 '생존이 걸린 퀴즈'를 풀게 되고 이후 식재료를 얻어 '쿡방'과 '떡방'을 아우르는 과정을 통해 종전 연색 웃음을 선사한다. '엔택트 시대 셀프고립' 상태를 자연으로 옮겨 그 안에서 경쟁하지만 '자유'를 만끽하는 멤버들의 모습 그 자체가 하나의 관전 포인트인 것. 실제로 방송에는 대 자연의 품에서 고베 풀린 망아지처럼 제대로 놀고 가는 멤버들의 모습이 담겨 있다.

마치 친구와 함께, 지인들과 함께 하는 야생에서의 캠핑을 떠올리게 만드는 추억 상기의 프로그램, 그리고 그 대자연에 고스란히 느껴지게 만드는 아름다운 풍경들은 시청자들에게 가슴 뻥 뚫리는 힐링과 웃음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문 예능인 이수근, 양세찬, 이진호를 비롯해 박세리, 이해성, 밥굽남 등 예능계의 신성이 한데 모인 것도 이 프로그램을 풍성하게 만드는 요소다. 기존 시청자들에게 익숙했던 예능인들과 새로운 캐릭터들의 향연으로 볼거리가

풍성할 예정. 식재료에 매달리지 않으면 결코 식사를 하지 못하는 절박함 등이 시청자들의 배움을 잡게 할 예정이다. '와와퀴' 제작진은 "혁 소리가 나는 자연의 압도적인 아름다움을 시청자 여러분의 방구석까지 전달할 수 있었으면 했고 이를 통해 셀프고립 시대에서 대리만족을 느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됐다"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여러분께 웃음까지 선사할 수 있는 다양한 요소를 덧입혔으니 본방송을 통해 꼭 확인 부탁드린다"고 기대를 당부했다. 한편 '와와퀴'는 skyTV의 버라이어티 채널 NQQ와 종합편성채널 MBN이 첫 공동 제작하고 첫 동시 방송하는 프로그램. '틀린 자는 굶는 진정한 승자독식 예능'이다. MBN을 비롯해 NQQ를 통해 만날 수 있다.

skyTV는 종합 드라마-오락 채널 SKY를 비롯해 버라이어티 채널 NQQ, 명작 큐레이션 채널 ONCE, 라이프 스타일 채널 OLIFE, 스포츠 전문 채널 skySports 등 8개의 채널을 보유하고 있다. '즐거움을 창조하는 콘텐츠 기업'을 모토로 오리지널 IP를 창출하는 차세대 미디어 그룹으로 주목받고 있다.

전순희기자

'더블 밀리언셀러' NCT 정규2집 Pt.2 가온 앨범 차트 또 1위! 톱런 인기 입증!

NCT(엔시티, 에스엠엔터테인먼트 소속)가 정규 2집으로 인기 톱런 중이다. 작년 11월 발매된 'NCT - The 2nd Album RESONANCE Pt.2'(엔시티 - 더 세컨드 앨범 레조넌스 파트2)는 14일 발표된 가온 앨범 차트(1월 3~9일)에서 정상을 차지하며 3주째 1위를 기록했다. 이번 앨범은 NCT 멤버들의 다양한 조합과 음악 색깔을 만날 수 있는 앨범으로, 12월 월간 음반 차트 1위를 석권하는 등 뜨거운 인기를

얻었다. 또한 NCT는 정규 2집 Pt.1과 Pt.2 모두 100만장이 넘는 판매고를 기록하며 총 268만여장의 음반 판매량을 기록, '더블 밀리언셀러'에 등극했으며, '2020 AAA'에서 대상 중 하나인 '올해의 앨범상'을 수상함은 물론, '제35회 골디디스크어워즈' 음반 부문 본상, '제10회 가온차트 뮤직 어워즈' 월드 한류스타상 및 올해의 탑 키트 셀러상을 수상하는 등 각종 시상식에서도 존재감을 입증했다.

최만식기자



자칭 넘버3 규현 "사장 노린다" 자신만만 엘리트 막내 웬디 웃음 빵~

공동사장 윤종신-장윤정, '망하기 직전' 하소연 vs '배달비 안 받아' 선심 '상반 전략 놀길'

JTBC 새 음악 토크쇼 '배달gayo-신비한 레코드샵' 4MC 윤종신-장윤정-규현-웬디가 당찬 각오와 함께 매력적인 영입 전략과 서열이 담긴 티저 영상으로 본방송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여기에 규현이 자칭 No. 3 라고 소개한 뒤 "사장 자리를 노린다"고 밝혀 웃음을 자아냈다.

코드샵'의 콘셉트를 집착해 했다. 그런가 하면 레코드샵의 자칭 No. 3 직원 규현은 "사장의 자리를 노리고 있는 직원 1호"로 자신을 소개하며 야심 드러내기를 마다치 않은 것은 물론, 한껏 거만한 상황을 연출해 깨알 같은 캐릭터로 웃음을 자아냈다.

오는 22일 첫 방송되는 JTBC 신규 음악 토크쇼 '배달gayo-신비한 레코드샵' 측은 13일 레코드샵 오픈과 함께 각각 사장과 직원으로 변신해 손님 끌기에 나선 윤종신-장윤정-규현-웬디의 모습이 담긴 1차 티저 영상을 공개했다.

'신비한 레코드샵' 사장이자 이번 예능을 부키 프로그램으로 결정한 윤종신은 의욕 충만한 모습일 거란 예상과는 달리 "저희 신비한 레코드샵 찾아와 주셔야 해요. 망하기 직전이예요. 시작하자마자"며 한껏 낮은 자세를 취한 데 이어 "여러분들이 꼭 많이 와주셔야 저희가 살아남습니다"라는 현실 사장다운 멘트로 웃픈 상황을 연출해 눈길을 끌었다.

'신비한 레코드샵'은 4MC와 함께 공동의 직업으로 뮤인 게스트가 출연해 '인생 이야기'와 '인생 곡'을 소개하며 플레이리스트를 완성하는 음악 예능으로 시대의 트렌드를 영민하게 포착한 기획이 눈길을 끌며 첫 방송 전부터 방송가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다. 공개된 티저 영상에는 엘리트 막내 직원으로 부한 웬디의 활기찬 환영 인사와 안내를 시작으로 레코드샵 공동 사장이자 실제 중의 실세인 장윤정이 "자연 보내주시면 노래 배달해 드릴게요. 배달료는 없어요"라는 멘트로 '신비한 레

'당신의 플레이리스트를 만들어 드립니다'라는 핵심 콘셉트이자 캐치프레이즈 아래 함께 모인 이들 네 사람은 앞으로 게스트들의 인생 곡과 이와 어우러진 인생 이야기를 유려하게 직조해 나만의 플레이리스트로 시청자들에게 웃음과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다. '음악장인' 4MC가 함께 만들어 갈 인생 스토리와 인생 곡 조합에 관심이 쏠린다.

정동희기자



'여신강림' 황인엽, 빠져들 수밖에 없었던 연기 모음

- 황인엽, 뜨거운 화제성 차지하는 이유! 안방극장 사로잡은 명장면 넷

- 황인엽, 시청자 사로잡는 캐릭터 혼연일체 연기 '설렘+짱내' 주의 배우 황인엽이 캐릭터와 하나 된 연기로 안방극장을 사로잡고 있다.

tvN 수목드라마 '여신강림'에서 한 서준 역을 맡은 황인엽이 가슴 설레는 연기로 호평을 이끌어 내고 있다. 특히 1020 시청자들의 호응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황인엽은 안정된 연기력으로 캐릭터의 설렘 포인트를 섬세하게 그려내 시청자들이 드라마에 더욱 푹 빠져들게 만

들고 있다는 평. 이에 때로는 설렘으로 때로는 가슴 짱한 다정함으로 안방극장을 가득 채운 황인엽의 명장면을 짚어봤다.

◆ "어흥!" 사랑에 빠진 순간 (6회) 황인엽은 극 초반부터 걸은 쌀쌀맞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따뜻하고 다정한 매력으로 눈도장을 찍었다. 여는 10대와 같이 친구들과 절친은 장난을 치다가도 아픈 엄마 간병을 도맡아 하고 여동생을 끔찍이 아끼는 따뜻한 아들이자 다정한 오빠의 모습을 그려내며 반전 매력을 뽐냈기 때문. 이런 서준이 늘 투닥거리던 주경(문가영 분)에게 사랑에 빠지는 순간은 보는 이들마저 흐뭇하게 만들었다. 황인엽은 서준에게 가까이 다가와 "어흥!"이라고 불리는 주경이 예뻐 보이고, 심장이 쿵 내려앉는 설렘의 감정을 혼란스러운 표정과 묘하게 달라진 눈빛으로 그려내며 점점 주경을 향한 마음을 자각해



나갈 서준에 기대를 높였다.

◆ "솔직히 임주경 좋아져서 왔다" 자각 고백 (7회)

서준이 주경을 향한 마음을 완백하게 인정한 순간이다. 처음에는 수호(차은우 분) 때문에 주경에게 접근했지만 점점 주경에게 호기심이 생기고 단순 장난은 호감이 됐다. 하지만 하필이면 수호가 좋아하고 있는 주경을 자신도 좋아하게 됐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터. 갑자기 나타난 직진남 류형진의 등장과 수호의 선전포고에 더 이상 자신의 감정을 부정할 수 없었다. 이에 황인엽은 "솔직히 야구 말고 임주경 좋아져서 왔다. 내가 그럼 안될 이유라도 있어?"라는 도발적인 고백과

함께 자신의 감정을 받아들이게 된 캐릭터의 감정 변화를 세밀하게 표현해냈다. 또한 자각과 동시에 수호와 맞붙은 단단한 눈빛은 시청자들의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았다.

◆ "그럼 나한테도 비밀로 하던가" 짱한 다독임 (8회)

서준이 뒤늦게 주경을 향한 마음을 자각했을 때 이미 주경의 마음은 온통 수호에게 향해 있었다. 수호에게는 "선착순이었나? 먼저 좋아한 게 뭐! 임주경 마음이 중요한 거 아니냐?"라고 큰소리쳤지만, "나 이수호 좋아하거든"라고 말하는 주경의 직접적인 고백에 마음이 무너

질 수밖에 없었을 것. 이 장면에서 황인엽의 설렘 연기가 절정에 달했

최재은기자

'미스트롯' 홍자, 미스틱스토리 전속계약...새 출발 예고

- '내일은 미스트롯' 홍자, 미스틱스토리와 전속 계약

- '곰탕 보이스' 홍자, 방송-음악 등 한계 없는 활동 펼칠 예정

'미스트롯' 출신 홍자가 미스틱스토리와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미스틱스토리는 14일 "TV조선 '내일은 미스트롯' (이하 미스트롯)을 통해 큰 사랑을 받았던 홍자와 전속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2012년 '애 딸을 못해, 울보야'로 가요계에 데뷔한 홍자는 지난 2019년 '미스트롯'에 출연해 폭 우려낸 듯한 곰탕 보이스와 호소력 짙은 감수성으로 평가단과 시청자들을 모두 사로잡으며 치열한 트루 경쟁 끝에 3위인 미(美)를 차지했다.

이후 각종 방송과 행사, 홍보대사 등을 섭렵했을 뿐만 아니라 '미스트롯' 후 콘서트' 전국투어를 통해 팬들과 소통하며 대중성과 탄탄한

팬덤을 동시에 구축해왔다.

지난해 정규 앨범 '내:딤다'를 발매하며 단독 토크쇼 콘서트를 개최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홍자는 미스틱스토리와 전속계약을 체결하며 더욱 다채로운 모습을 선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미스틱스토리는 "다양한 색깔의 아티스트를 보유한 미스틱스토리에서 홍자가 다방면으로 활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스틱스토리는 음악·방송·영화 등 다방면 콘텐츠를 창작하는 종합 엔터테인먼트 콘텐츠 기업으로, 윤종신, 서장훈, 김나리, 김영철, 정인, 정진운, 민서, LUCY, 박혁권, 조한선, 태항호, 박시연, 김성은, 고민시 등 가수, 배우, 엔터테이너들이 다수 소속돼있다.

전순희기자

